



#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77호  
2025년 10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contact@snuaa.org



9월20일 시카고 한인문화원에서 열린 고 강수상 박사 추모식에 참석한 동문들이 황효숙 회장(맨 앞줄 왼쪽에서 12번째)과 함께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 황효숙 회장 첫 지부 방문...시카고 동문들 환대

### 고 강수상 박사 추모식 참석, 뜻깊은 시간 지부와의 소통·협력 강화 행보 본격화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사진)이 시카고 지부를 방문했다. 미주동창회 산하 각 지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부 동창회 활성화를 돕기 위한 지원을 18대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취임 이후 3개월도 채 안돼 첫 지부 방문에 나선 것이다. 황 회장이 시카고 지부 동문들을 만난 9월20일은 시카고 동창회 제5대 회장과 미주동창회 제2대 회장을 지낸 고 강수상(의대 47) 박사의 추모식이 있던 날이다.

이날 시카고 한인문화원 비스코홀에서 거행된 추모식에는 시카고 동문들이 많이 참여했고 황효숙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서울대 동창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고 강수상 박사의 사랑과 핵의학자이자 유전학자, 교육자로서의 그의 업적을 기렸다. 강박사의 부인인 강정희 한인문화원 이사장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황효숙 회장은 또 김운태(의대 63) 한인문화원 회장, 한인문화원 탄생의 주역인 장기남(문리대 62) 동문, 김승주(간호대 69) 동문 부부, 2004년 세종문화회를 설립해 한국의 시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박종희(의대 69), 김호범(상대 69) 동문 부부 등과 인사를 나누며 끈끈한 동문의 정을 확인했다. 황 회장은 이날 추모식에 앞서 시카



고 동창회 임원진과 아침 식사를 하며 지부 활동 현황을 경청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식사 모임에는 이동균(공대 75) 차기회장 부부와 골든클럽 회장인 안창혁(사대 65) 동문, 김영원(사대 67) 동문 부부, 미주동창회에서 조직관리담당 고문을 맡고 있는 이준수(공대 76) 동문 등이 함께 했다.

시카고 지부는 500여명의 회원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장학사업과 활발한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골든클럽 시니어 모임이 자랑거리다.

사대 65학번으로 황 회장과 동기인 안창혁 골든클럽 회장은 전날 찾아낸 대학 졸업 당시 황 회장의 사진을 가져와 옛 추억을 회상하는 답소를 나누며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했다. 글=이준수(공대 76)·사진=소진문(치대 58)

## 세 번째 다이아몬드 이사 탄생 신의석(공대 53) 동문, 이름 올려

### 미주동창회에 10만불 기부 “동창회 더욱 발전하기를”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세 번째 다이아몬드 이사가 탄생했다.

다이아몬드 이사는 미주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 ‘센추리 파운데이션(Century Foundation)’에 1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동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명예 호칭으로 워싱턴주의 고 고광선(공대 57) 동문과 뉴욕의 조상근(법대 69) 동문에 이어 이번에 필라델피아의 신의석(공대 53) 동문이 명예의 다이아몬드 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신의석 동문은 1986~1987년 필라델피아 지부 동창회장을 지냈으며 미주동창회 실버이사(5000달러 이상 기부)였는데 이번에 10만 달러를 기부해 다이아몬드 이사가 됐다.

신의석 동문은 “모교 동창회를 꾸준히 지원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미주 동문을



지난해 필라델피아 지부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신의석 동문.

하나로 묶는 소중한 네트워크로 더욱 발전해 미국에서 서울대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는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부금을 전해왔다.

신의석 동문은 1957년 공대를 졸업하고 1959년 미국 유학 길에 올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전기공학과에서 제어 시스템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육군과 공군의 국방 관련 계약업체에서의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30여 년간 우주 산업 분야에서 위성 자세 제어 및 시스템 공학 관련 다양한 위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관계기사 5면>

서울대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Tel: 651-308-0796 | Email: contact@snuaa.org

동창회보 구독자님들께서 동문 지인 중 아직 동창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께 다음 달 동창회보를 보내드리고 싶은 경우,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메일(contact@snuaa.org) 또는 미주동창회 주소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 서울대 홈커밍데이 10월 19일

## 제주도 관광 10월 21일~25일 | 4박5일







문의: (651) 308-0796 • Email: contact@snuaa.org

## 18대와 19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주동창회

### 황효숙 회장, 미네소타 방문한 박상근 차기 회장 환영 모임

18대 미주동창회 회장단은 지난 9월 5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Tea House Chinese Restaurant에서 박상근 제19대 차기 회장 부부를 맞이해 환영 저녁 모임을 가졌다. 시카고·달라스 등 여러 지부 방문 일정을 마친 박 차기 회장이 미네소타까지 발걸음을 옮기자 18대 임원진이 정성껏 환영하며 미주 동창회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모임에는 황효숙 회장을 비롯해 주한수·문성인 고문, 변정민 Brain Network 국장, 손상수 재무국장, 임동근 총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황 회장은 올해 7월 제18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활동을 돌아보며 “지부 간 네트워크 강화와 젊은 동문 참여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고 소개했다. 박상근 차기 회장은 이에 “18대 집행



황효숙(왼쪽에서 세번째) 미주동창회장이 박상근 차기 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부부의 미네소타 방문을 환영해 9월5일 18대 집행부 임원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부가 닦아놓은 기반이 미주동창회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화답하면서 “차기 회장으로서 이러한 노력을 존중하고, 지부 명단 관리와 운영 체계 강

화에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부 명단의 정확성과 지속적 관리, 운영·재무 체계의 표준화, 지

부 간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오갔고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동창회의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만남은 18대 집행부와 차기 회장이 경험과 비전을 나누고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미주동창회를 위해 세대 간 소통과 지부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뜻을 모으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취재=임동근(농생대 대학원 14)  
미주동창회 총무국장

### 미주동창회 3개 지부 개최 음악회 후원

9월 가을을 맞아 미주동창회 각 지부에서는 동창회가 주최하는 동문들의 음악회가 이어졌다.

필라델피아 동창회는 9월6일 동문 음악인들이 마음을 모아 미얀마 음악학교 설립을 후원하기 위한 베네프트 디너 콘서트를 열었고 남가주 총동창회는 9월20일 남가주 동문합창단과 음대 동창회가 함께 하는 정기 공연을 개최했다. 9월21일에는 북가주 음대 동문회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문 음악인들이 출연하는 음악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는 장학과 지역사회 봉사 목적으로 열린 3개 지부의 음악회 모두를 재정 지원했다. 황효숙 회장은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지부 동창회에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미주동창회는 앞으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앞장 서는 지부들의 멋진 행사를 계속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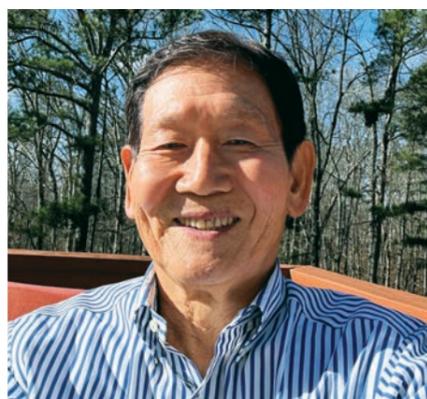
## 종신이사 합류 이어져 ...성성모(사대 67) 동문도 가입

포틀랜드 올드타이머  
현재는 애틀랜타 거주

미주 동문들의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가입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성성모(사대 67) 동문이 미주동창회 발전을 위한 모금 캠페인 선추리 파운데이션에 3000달러를 기부해 종신이사에 합류했다.

성성모 동문은 “서울대에서 학위를 받아 편하게 살았으니 당연히 보답을 해야 한다”며 기부금을 전해왔다.

성성모 동문은 현재는 애틀랜타에 살고 있지만 퍼듀대학에서 지질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이사해 오랫동안 시의 하수도 디자인 매니저로 일하며 포틀랜드 한인사회에서 폭넓은 봉사활동을 해온 포틀랜드 시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성 동문은 “시청 department commi-



ssioner 가 너무 낭비가 많고 정치적인 결정이 engineer 결정을 우선하는 사례를 많이 보면서 시장출마를 결심했었다”면서 “Water bureau 와 environmental bureau 를 합쳐 sewer bill 을 30% 줄이고 police bureau 를 restructure 해서 시민을 위한 경찰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예비경선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오리건 한

인 역사상 최초의 시장 도전이었다.

성 동문은 오리건 노인급식센터 이사, 오리건 한국학교 교장, 평통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198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 문교부의 인가를 받은 한국 방송 Korean Culture TV를 운영하기도 했다.

성 동문은 애틀랜타로의 이사와 관련해 “포틀랜드가 산수가 좋고 날씨도 좋는데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지진 가능성도 높아 NASA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지목한 애틀랜타로 이사를 했다”면서 대화 말미 “지질학적으로 옐로스톤 마그마가 언젠가 폭발하면, 미시시피강을 따라 미국 중부 지역과 플로리다 전체, 그리고 서부의 해안 산맥(Coastal Range)은 침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소견을 덧붙였다. 놀라서 구글 서치를 했는데 옐로스톤 마그마의 폭발이 엄청난 규모의 재해를 일으킬 수 있지만, 언급한 지역들의 침강이 일반적인 지질학적 예측이나 학설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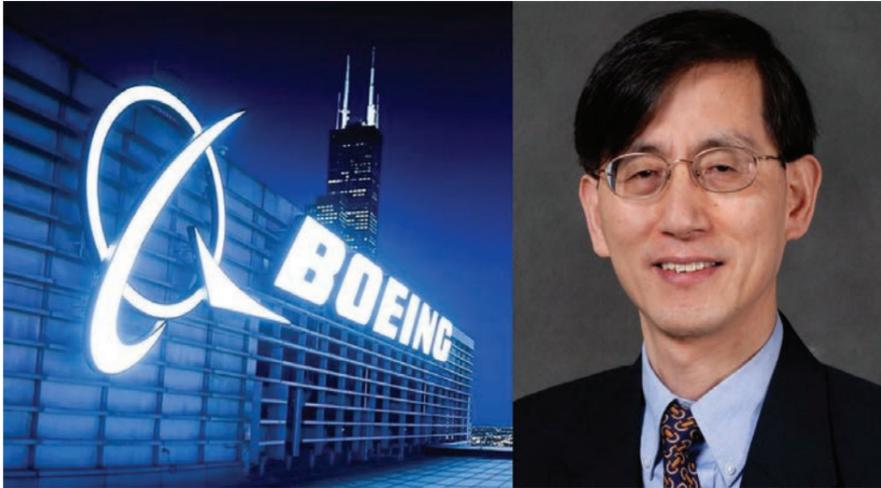
**미주동창회 '선후배의 대화' 프로젝트 시작**

롭게 대화하며 교류하는 '선후배의 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보잉기술연구소 기술임원(Executive Technical Fellow)으로 활동 중인 김재훈 동문(공대 72)과 미네소타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수정 동문(기계항공 13)이 온라인으로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재훈 동문은 “준비된 질문을 통해 선배의 경험을 배우려는 후배의 열정이 인상 깊었으며, 대화가 너무 즐거워 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주동창회는 이번 항공 분야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매달 다양한 분야에서 '선후배의 대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선배·후배 동문을 분야별로 연결해 드리고, 각 팀의 대화 내용은 동창회보에 칼럼으로 게재됩니다. '선후배의 대화'는 단순한 대화 자리를 넘어,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누며 동문 공동체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가려는 시도로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이나 상금 후원을 원하시는 동문은 미주동창회 (651-308-0796 / contact@snuua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는 세대 차이와 물리적 거리를 넘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선배 동문과 후배 동문이 온라인으로 만나 자유



보잉기술연구소 기술임원인 김재훈 동문(공대 72)과 미네소타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수정 동문(기계항공 13).

# 네트워킹·진로·취업...따뜻한 조언에서 길을 찾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통해 김재훈 선배님과 zoom으로 약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우주항공 및 군용 통신분야에서 오랜 시간 몸담아 일하신 선배님과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설레기도 했지만 이런 기회는 또 처음이라 긴장된 마음에 선배님의 기사를 미리 살펴보고 선배님에게 여쭙보고 싶은 질문들과 함께 간단한 발표자료도 혹시 몰라 준비해두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선배님이 먼저 친근하게 해주시고 대화도 이끌어주셔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 대화 속에 궁금했던 질문들을 녹여낼 수 있었다.

**이수정(이하 이):** 네트워킹이 아직도 어렵습니다. 학교나 학회 외에 네트워킹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재훈(이하 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걸 추천합니다. 현재 재학 하고 있는 학교의 경계를 넘어 미 전역의 다양한 학교, 회사에 속해 있는과학기술자들이 모여있고, 매해 8월에 개최되는 UKC (US-Korea Conference)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관련 기관들도 참석하여 과학 공학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쌓기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이:** 좋은 협회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가입해야겠어요. 그런데 학회 참여는 학생 신분으로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김:** KSEA에서는 매년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학원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UKC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도 지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UKC에서 SEED (Scientists and Engineers Early career Development

김재훈 선배 “배우려는 후배 열정 인상 깊었다”

이수정 후배 “좀 더 뚜렷한 목표 의식 갖게 됐다”

미주동창회 “대화 원하는 동문, 참가 신청 받아요”

workshop)라는 젊은 과학자들의 경력 개발,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초반 커리어를 돕는 워크샵을 진행하는데, 이에 지원해서 선발되면 UKC에 참석하기 위한 항공권과 숙박 등을 지원해줍니다. 이와 같은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내년에 꼭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전해보겠습니다!

**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KSEA 내에 Affiliated Professional Societies라는 구조 아래 속해 있는 KASSTA (Korean-American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ion)에도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항공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그룹으로 더욱 전공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좋은 정보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 정보 없이 찾기에 막막했었는데 덕분에 네트워킹을 위한 좋은 시작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혹시 선배님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 플로리다 대학에서 광통신소재 및 시스템 분야를 전공하며 박사 학위를 마친 후, 칼텍 제트추진연구소 (JPL)과 보잉기술연구소 등 여러 곳에서 잡오퍼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캘리포니아주 파사디나에 위치한 칼텍 제트추진연구소로 가게 되었고 약 5년간 연구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잡오퍼를 받았던 보잉 연구소의 거듭된 권유로 워싱턴주 시애틀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보잉 777비행기의 광통신 송수신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미 국방부 공군, 육군, 해군의 무선, 이동, 위성 통신 연구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차례로 참여하며 보잉에 35년간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Boeing Technology Innovation (BTI) 기술임원으로 Executive Technical Fellow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항공기 전자통신컴퓨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 후배님의 기계항공공학과는 구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님은 현재 박사과정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나요?

**이:** 우주비행체의 자세 제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의 커리어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 조언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 비행 제어 시스템 (Flight Control System), GPS항법시스템은 무인항공시스템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양자 계산 (Quantum Computing), AI 등과 같이 현재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국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미국에 꼭 필요한 분야의 기술자라고 판단되면 외국인이라도 반드시 고용을 합니다. 또한 보잉 상용비행기 (Boeing Commercial Airplanes) 부문처럼 민간 분야에서도 주목받는 분야이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폭넓게 알아보길 바랍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분

야간의 협업이 용이하여 학교에서 다양한 분야를 접해두면 나중에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제 분야에 제한을 두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폭넓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취업을 위한 Resume 작성에 대한 조언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Expertise)과 무엇 (Achievements)을 해왔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목표 (Vision)를 잘 명시하는게 중요합니다. 박사과정이니 논문 목록도 중요할 것이고, 특히 오늘날 디지털 정보 기술 사회에서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회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잡마켓에 나를 잘 광고할 수 있는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미리 경험을 쌓고 그러한 능력을 쌓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본 칼럼에 작성한 내용뿐만 아니라 선배님이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 KSEA에서 만나셨던 분들과의 이야기 등 선배님의 경험들을 들으며, 접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과 함께 그동안 모르고 있던 문 하나가 열리는 기분이었다. 특히, 졸업을 약 2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배님께서 해주신 조언들은 다시 한 번 나에게 동기 부여와 함께 좀 더 뚜렷한 목표 의식을 주었다. 남은 학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또한, 어렵게 맺은 소중한 인연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고자 한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 내주시신 김재훈 선배님과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힘써주신 박현아 사무총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혜란 동문이 2011년 12월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메시아' 전곡 연주 음악회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박혜란 동문과 그의 든든한 후원자인 남편.

# “할렐루야!” 연말 필라델피아에 ‘메시아’ 울려 퍼진다

**박혜란(음대 84) 동문 지휘로 12월 6일 헨델 ‘메시아’ 전곡 공연**

나누기 위해 필라델피아 연합찬양단을 창단하고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서 열정을 쏟고 있다. 공연일은 오는 12월6일. 여러 교회 성가대원 50여명이 함께 모여 지난 7월부터 매주 일요일 박혜란 동문이 섬기고 있는 영생장로교회에서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박혜란(음대 84) 동문이 연말을 특별하게 장식할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해마다 연말이면 세계 곳곳에서 울려퍼지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감동을 필라델피아 한인들과 함께

“작년에 영어로 ‘메시아’를 1부만 연주했을 때 많은 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도 ‘메시아’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코비드 이후로 찬양대가 없어지거나 연세가 많아져 더 이상 못하고 있다면서 몹시 그리워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작년 말부터 기도로 준비하다가 용기를 내어 필라델피아 연합찬양단을 모집했는데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 50명 정도로 합창단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헨델의 ‘메시아’는 음악으로 구현한 복음서라 할 수 있다. 1부는 예수의 탄생이 갖는 의미와 구원의 메시지를 암송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표현한 ‘메시아의 출현과 탄생’, 2부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비통함과 애절함을 보여준 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로 인해 승리와 환희가 장엄하게 펼쳐지는 ‘수난, 죽음, 부활과 승천’, 3부는 예수의 부활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믿음과 소망을 성스럽고 웅장하게 그려낸 ‘성도의 구원과 영생’으로 연주 시간만 2시간 30분에 달하는 대곡이다. 박혜란 동문은 전체 3부 53곡 중 일부 곡만 제외하고 1부와 2부, 3부 전체를 아우르는 전곡 연주를 나선다. 헨델의 ‘메시아’는 잘 몰라도 ‘할렐

공연 위해 필라델피아연합찬양단 창단  
여러 교회 찬양대 50여명 참여해 연습  
동창회장 2번 하며 수차례 음악회 개최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길” 동문들 초대

루야! 할렐루야!’가 반복되어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대합창은 누구나 들어봤을 것이다. 바로 2부의 마지막에 나오는 곡이다.

1743년 3월23일 런던 코벤트가든 왕립오페라극장에서 이 곡이 초연되었을 때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그 웅대함과 아름다움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자 관객들도 모두 기립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는 설과 함께 이후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는 관객이 전원 기립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박혜란 동문은 “영생장로교회 창립 30주년 때 150명 연합찬양으로 처음 ‘메시아’를 공연했는데 그때가 제가 연주한 ‘메시아’중 최대 규모였다”면서 “지금은 합창인원을 그렇게 많이 모으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지만, 연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송음악을 들으며 위로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들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동문은 “김성지(음대 92) 동문이 소프라노 솔리스트로 참여하며 대부분의 동문들은 후원과 청중으로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혜란 동문은 필라델피아 동창회장을 두 차례 역임했으며 회장 재임 시절에는 음대 동문들과 함께 동창회 봄 음악회를 네 차례 개최해 동문간 교류와 친목 다지기에 앞장 섰다. 음대 졸업 후 유학생인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와CUA에서 성악 석사를 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음악 활동을 잠시 접었다가 템플 대학에서 지휘로

석사를 한 후 지금까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에는 필리 카메라타 합창단을 창단해 정기연주회와 더불어 암환자·자폐 아동 돕기, 허리케인 피해자 돕기 등 베네팩 콘서트를 꾸준히 이어왔다. 또한 크로스선교회 음악이사로 13년째 북방선교후원 음악회를 개최하며 모금액을 북한 아동 의약품 지원과 진료소 건립에 사용해왔다. 최근에는 선교사 진료 가방 사역을 돕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음악을 사랑하는 남편이다. 대부분의 공연이 베네팩 성격이라 돈을 벌기 보다는 개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남편이 재정적 후원자로 뒤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남편은 듀크대에서 바이옴디컬 엔지니어링 박사학위를 받고 UPenn 포닥을 거쳐 노스웨스턴, 브라운대 의대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를 지냈다. 지난해 미국 의학물리학회 펠로우로 선출됐으며 지금은 뉴욕주립대 의대 교수다.

박혜란 동문 지휘로 오는 12월6일 필라델피아에서 다시 울려 퍼질 헨델의 ‘메시아’는 음악적 성취를 넘어 연말 동문과 교계, 지역사회를 잇는 특별한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세계 오페라 무대 누비는 박혜상 동문

모차르트 ‘돈 조반니’ 체를리나 역 맡아

세계 주요 오페라 하우스와 콘서트홀을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프라노 박혜상(Hera Hyesang Park·음대 2007) 동문이 지난 9월 뉴욕 메트로폴리탄(이하 메트) 오페라 하우스로 돌아왔다. 메트 오페라의 2025~2026 시즌 문을 여는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에서 바람둥이 귀족 돈 조반니에게 유혹 당하는 순박한 시골 처녀 체를리나 역을 맡아 9월24일 첫 공연을 한

데 이어 10월25일까지 아홉 차례 무대에 선다.

박혜상 동문에게 뉴욕은 ‘제2의 고향’과도 같다. 2011년 서울대 졸업 후 세 번의 도전 끝에 줄리어드 음악원에 입학했고 메트 오페라의 권위있는 린데만 영 아티스트 개발 프로그램에 발탁되며 2017년 메트 오페라에서 데뷔했다. 처음 맡은 역은 드보르자크의 오페라

‘루살카’에 나오는 숲속 나무 정령 단역이었는데 시즌을 거듭하며 점차 비중을 늘리다 2021년 12월 마침내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여주인공 파미나 역을 맡으면서 주역으로 우뚝 섰다. 그리고 이어진 베를린 국립오페라, 파리 국립오페라, 함부르크 국립오페라, 헝가리 국립오페라, 영국 글라이드본 페스티벌과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 오랜 시간 비상을 준비해온 프리마돈나가 마침내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오른 것이다. 오페라 뿐 아니라 뉴욕 필하모닉과 함

# 10만불 기부 다이아몬드 이사된 신의석(공대 53) 동문 구순에도 새로운 세계 경험하는 긴 여행 즐겨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1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해 다이아몬드 이사가 된 신의석(공대 53) 동문은 구순의 나이에 해도 여행을 즐긴다.

지난 9월 말에는 51일간의 남태평양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샌디에고에서 출발해 마우이, 호놀룰루, 카일루아-코나 등 하와이 제도과 피지, 사모아 등 태평양 섬들, 타이티 제도 섬 등 20개 섬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여행이다. 앞서 지난 봄에는 3주 동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을 돌아보는 실크로드 여행을 다녀왔다.

신의석 동문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친해지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좋아 아내와 함께 자주 여행을 다녔는데 이제는 혼자서 다닌다”며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 낯선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어 좋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을에도 시애틀에서 출발해 알래스카를 거쳐 일본 홋카이도로 들어가 일본을 한바퀴 돌고 돌아오는 두 달간의 크루즈를 즐겼다. 아무리 여행을 좋아해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배 안에서 두 달을 지내는 것은 외롭지 않을까. 지난해 60여 년을 함께한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말그대로 혼자하는 여행인데.

“실크로드 여행은 아버지 혼자 가면 힘들다고 뉴욕에 사는 작은 딸이 휴가를 내고 같이 갔어요.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았고 59세인 딸이 두 번째로 어린 여행객이었는데 솔직히 하루 3~4시간씩 걷는 것이 힘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야 힘들면 배 안에 있으면 되니까 문제 없습니다.”

신의석 동문과 인터뷰를 하기 전 그의 얼굴 사진을 먼저 접했다. 구순에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는 백발을 뒤로 묶은 모습을 보며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다. 다양한 인공위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평생의 대부분을 우주 분야에서 일했으니 지구에서 그나마 광활한 곳인 사막과 바다로 여행을 하며 광활한 우주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런데 머리는 왜?” 질문을 던졌다.

“한국에서 위성 일을 도와달라고 했



신의석 동문이 지난 봄 딸과 함께 떠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5개국 여행 당시 찍은 기념 사진.

## 9월 말 51일간의 남태평양 크루즈 여행 떠나 평생을 우주 분야에서 일한 ‘자유로운 영혼’

는데 제가 방위 산업에서 일을 하니까 갈 수가 없다가 2000년 록히드 마틴 시스템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은퇴 하면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상주 자

문관으로 왔습니다. 이발소를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할 지 몰라 안 가다 보니 그것이 25년이 됐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어서가 아니



신의석(뒷줄 가운데) 동문이 두 딸, 아들, 손자들과 함께한 가족 사진.

라 “게을러서 그랬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주 분야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수많은 새로운 발전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하늘에서 전기를 발명하는 것’을 끝내 실현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신의석 동문은 이번 10만 달러 기부와 관련, “우리 삼형제가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동생은 미대 학장을 했다”면서 “서울대에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집사람 떠난 후 정리하면서 동창회에 기부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와서 석박사한 펜실베이니아대학 공대 대학원에도 장학금을 기부했는데 기부 증서에 ‘펜실베이니아 공과대학의 충실한 동문이자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기뻐했다고 말했다.

신의석 동문은 필라델피아 동창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은 고 임덕상(문리대 46) 당시 U-Penn수학과 과장 등 초창기 멤버들과 함께 동창회를 만들어 4대 회장을 지냈다. 신 동문은 “50년대 입학한 동문 10여명이 이 지역에 사는데 요즘은 동창회 모임에 매번은 못나가고 서너 번 중 한 번은 나가려고 한다”며 “집에 있을 때는 정원 가꾸고 책 읽고 동네 산책 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신 동문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모두 아이비리그를 나와 의사, 변호사, 금융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 원고모집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500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외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고화질 프로필 사진

.....

contact@snuaa.org

## ‘제2의 고향’ 뉴욕 메트 오페라에 돌아왔다

계한 헨델의 ‘메시아’, 런던 필하모닉과의 모차르트 ‘다단조 미사’, LA필하모닉과의 베토벤 ‘교향곡 9번’ 등 세계적인 교향악단과의 협연 그리고 유수한 콘서트홀에서의 리사이틀까지, 지난 4년간 그는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디바로 빠르게 달려왔다. 2020년엔 도이체그라모폰(DG)과 전속 계약을 맺고 데뷔 앨범 ‘아이 엠 헤라(I AM HER)’를 냈으며 지난해 두 번째 앨범 ‘숨’을 발매했다.

박혜상 동문이 메트 오페라를 통해 비상을 준비하는 동안 뉴욕 동문들도 그

### 정경희 동문이 회장인 뉴욕 한국음악재단 박혜상 카네기홀 데뷔 리사이틀 주최해 줘

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박 동문의 2023년 뉴욕 카네기홀(앤켈홀) 데뷔 리사이틀은 정경희(음대 82) 동문이 회장, 강 에드워드(사대 60) 동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음악재단(KMF)이 공동주최한 무대였다. 박 동문은 “여기서 잘 키워줘서 다른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제가 잘하고 있나요?’라고 묻는 기분으로 무대에 선다”며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다 보니 기회가 왔고 좋은 사람들을 좋은 타이밍에 만난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9월24일 ‘돈 조반니’ 개막일에 출연한 박혜상 동문.

# ‘베사메 무초’ 악보와 씨름하다 허둥지둥 연습장으로

현기웅(문리대 64 남가주) 동문의 색소폰 배우는 즐거움

백만 원짜리 학생용 색소폰을 사들고 동네 청소년회관 음악반에 등록했다. 과란 우산, 검정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 길에... 더듬대는 내 모습을 ‘꼬마 선배들’이 힐끔힐끔 쳐다본다. 그 뒤 2014년 교회 색소폰 동호회에 가입할 때까지 십수 년의 공백기가 있었다. 2014년이 교회 색소폰 입문(?) 원년인 셈이다.

2001년 11월 뒤늦게 이민 와 2014년 색소폰에 입문(?)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색소폰에 처음 손을 댄 것은 1997년 평생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쉬고 있던 중 대학 친구의 권유를 받고서였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 박군이 부르는 ‘섬머타임’이 마로니에 교정에 울려 퍼지면 교우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앙코르가 터졌다. 음치인 나는 부러웠다. 음치, 아무리 노래가 좋다 해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90년대 초 갑상선 수술을 받았다. 수술에 앞서 의사는 성대를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 수술 후 보니 의사의 말대로 성대가 망가졌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럴지 않아도 음치인데 성대까지 못 쓰게 되다니... 음치에다 고장 난 성대가 색소폰이라는 악기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GSB 지휘자가 보내준 색소폰 섬머타임 소리가 카톡에서 흘러나온다. 10월 11일에는 금년 다섯 번째로 글로벌 심포닉밴드(GSB) 공연이 열린다. 나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공연에 참석한다. 서울대 동문인 나민주(음대 65) 목사가 지휘를 하는데 24명의 남녀 단원 가운데 80을 넘긴 사람이 7, 8명이 넘는다. 수명이 늘고 사회 활동이 활발해진 결과일 것이다.

매주 수요일은 공연 연습일. 2월부터 8개월째 이어오고 있다. ‘베사메 무초’, ‘할렐루야’, 빠른 박자와 리듬을 익히려 밤새도록 악보와 씨름하다 허둥지둥 연습장으로 향한다. 등교길을 서둘던 꿈 많던 학창 시절의 내 모습이 떠오른다. 연습 시간은 오후 1시, 오전 반 클라리넷 단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다. 새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익히고 가는 기쁨인가,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15명의 오후 반 색소폰 멤버들이 지휘자 앞에 모여 앉았다. 최소 10년 이상의 연주 경력자들이다. 옛날 같으면 골방에 앉아 곱방대나 피울 나이인데 대단하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자는 지휘자의 격려로 연습 수업이 시작된다.

‘주기도문’, ‘나의 등 뒤에서’, ‘생명의 양식’, ‘아메리카 더 뷰티풀’, ‘베사메 무초’, ‘트라이 투 리멤버’, ‘테네시 월츠’, ‘웬 더 세인츠 고 마칭 인’, ‘넘그림자’, ‘숨어 우는 바람소리’, ‘고향의 봄’, ‘할렐루야’ 그리고 ‘아! 대한민국’에 ‘손에 손잡고’까지 - 이번 공연에서 연주할 곡들이다. 귀에 익은 성가곡, 가곡, 가요, 팝송들을 두루 연주한다.

오늘은 연주곡 순서에 따라 주기도문부터 테네시 월츠까지 일곱 곡을 연습했다. 처음 시작은 항상 약하게, 노래 하듯 하라는 지휘자의 주문에도 첫 음포르테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오케스트라에서 저음 악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맨 앞줄에는 최고 실력의 콘트라베이스 주자가 앉는다. 그가 틀리면 그날의 연주는 실패작. 오늘 따라 테너, 바리톤의 저음 파트가 버벅댄다. 30여 분간의 테너, 바리톤 집중 연습. 덕분에 다른 파트는 편안한 감상 시간을 갖는다.

다섯 번째 곡, 베사메 무초. 감미롭고 정열적인 라틴 풍의 리듬, 우리에게 익숙지 않다. 저들의 리듬 감각을 익히려 모방 연습에 골몰한다. 음악은 모방(Mimic)이란.

색소폰 하면 가요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의 색소폰은 50년대 미 8군 무대를 중심으로 한 재즈 음악과 더불어 대



취미생활로 색소폰을 부는 현기웅 동문. 오른쪽 사진은 10월11일 공연을 앞두고 연습 중인 글로벌 심포닉 밴드 멤버들. 뒷줄 오른쪽 끝에 현기웅 동문 모습이 보인다.



## 2014년 교회 색소폰 동호회 가입하며 입문

## 24명 단원 가운데 80 넘긴 사람이 7명 넘어

## 10월 공연 앞두고 수요일마다 2시간씩 연습

## 건강 챙기며 쉬엄쉬엄 “일상이 즐거워요~”

중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가요가 색소폰의 한 장르로 자리 잡은 것이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50, 60만의 동호인이 있고 실용음악대학 기악 파트의 입시 경쟁률은 40~50대 1에 이른다. 이번 연주회 가요로는 넘그림자, 숨어 우는 바람소리가 있다. 작년에는 ‘18세 순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연주해 시니어들은 잠시 옛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어느새 두 시간의 연습 수업이 끝났다. 하교(?) 길에 2주 전에 주문한 리드를 찾으러 악기점에 들른다.

이쯤이면 색소폰 꽤나 부는 모양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아니다. 이제 연습곡 중급을 시작했을 뿐이다. 아직도 박자 맞추느라 헤매고 있다. 솔로 경험은 단 한 번뿐. 합주에서는 틀리게 부는 것보다는 불지 않아도 좋다, 부는

흥내만 내면 된단다.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지만 하는 수 없다. 나이 들어 ‘진상’ 수준은 아니더라도 뻔뻔함이 늘어나는 것 같다. 다만 서로를 프로라고 부르며 격려하는 단원들에게 수준 미달자가 되어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할 뿐이다.

2년 전부터 검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건강을 염려해서다. 나이가 많아 대련하다 다칠 수 있다는 이유로 몇 군데서 퇴짜를 맞은 끝에 지금의 도장에 등록할 수 있었다. 관장은 선수가 되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평생 운동 삼아 천천히 하자고 용기를 북돋운다.

검도는 수련이다. 연습은 매번 요즘 말로 멍 때리는 묵상으로부터 시작된다. 약해져 가는 육체의 건강이 걱정되어 시작한 운동이지만 정신 건강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꿈이 있

다면 언젠가는 나도 단을 따는 것이다.

노년의 취미 생활, 팔자 좋은 베짖이 타령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위한 필수 선택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새 자신감도 좀 붙고 성취감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상이 즐겁다. 은퇴한 지 오래이고 새삼 무슨 꿈을 좇고 있는 것도 아니다. 색소폰과 검도를 벗 삼아 건강 챙기며 쉬엄쉬엄 가고 싶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매주 가디나에 있는 작은 교회 기악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 두 시간 전에 10여 명의 멤버들이 모여 그날의 찬송곡을 연습한다. 매주 입례와 송영을 합쳐 여섯 곡을 연주한다. ‘내 영혼 평안해’, 마음이 편하다.

글을 받은 후 현기웅 동문에게 색소폰 배우는 것이 많이 어려웠는지 물었다. 현 동문은 “일단 배우기 쉽고 1년 정도면 동요는 물론 찬송가도 제법 볼 수 있다”며 동문들을 위한 취미생활로 강추했다.

현기웅 동문이 가입한 글로벌 심포닉 밴드(GSB)는 클라리넷과 색소폰 연주자들로 구성된 밴드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해 정기 연주회를 열어 10월 11일 남가주 애너하임에 있는 웨스트 애너하임 연합장로교회에서 제5회 음악회를 한다.



2년 전부터 검도를 배우기 시작한 현기웅 동문(오른쪽 끝에서 두번째). 몸의 건강이 걱정이 돼 시작했지만 정신 건강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 ‘건강이 최고 재산’ 건강 지키는 작은 습관들

뉴잉글랜드 지부의 김문소(수익대 61) 동문이 지부 동문 단톡방에 ‘건강이 최고 재산- 이 글은 1억원씩 내고 봐도 아깝지 않아요’ 라는 건강 관련 글 모음을 올렸다. 의학적으로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대중적인 건강관리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중 일부를 추려 정말 건강에 효과가 있는지 체크한 뒤 미주 동문들에게도 소개하기로 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실질적인 건강 습관들로 꾸준히 이어가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건강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다. 김문소 동문은 “내용이 좀 길지만, 저장해놓았다가 시간 날 때 꼭 읽어보고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자”는 당부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 1. 물,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이 부족하면 피로감, 입마름, 두통 같은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노인의 경우 어지럼증과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 혼돈·섬망 같은 정신 변화, 소변 감소로 인한 요로감염, 근육량 감소로 인한 근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하루 8잔(약 1.6L)의 물 섭취를 권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자신도 모르게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다. 따라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하루 루틴 속에서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일어나자마자 1~2잔의 물은 몸의 수분 균형을 회복하고 장운동을 자극하며 변비를 예방한다.
2. 식사 30분 전에 1잔의 물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고 소화를 촉진한다.
3. 운동 전 1잔의 물은 탈수를 예방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근육 피로를 완화한다.
4. 목욕 전 1잔의 물은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을 보충하여 어지럼증을 예방한다.
5. 잠자기 전 1잔의 물은 밤새 탈수를 막고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 2. 치아 건강 이렇게 지켜요

노인에게 치아와 잇몸 건강은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영양, 근력, 면역, 심혈관 건강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치아와 잇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영양 섭취 부족, 근력 저하, 심혈관 질환과 감염 위험 증가 등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 더욱 위험해진다. 따라서 하루 두 번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사용, 칫솔 정기 교체, 감염 후 칫솔 교체,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구강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1. 감기나 구강 감염 후에는 새 칫솔로 바뀌 재감염을 예방한다.
2. 칫솔 사용 후에는 깨끗이 헹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시켜 세균 번식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나 번거로울 수 있으니 소금물컵에 담아놓으면 세균 억제에 도움이 된다.
3. 칫솔질 후 티스푼 ½ 정도의 소금을 녹인 소금물로 1분 정도 입을 헹구면 세균을 억제하고 잇몸이 붓거나 민감할 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 3. 매일 사과 1개씩 먹었더니

나이가 들면 장의 근육 활동이 느려지고 장 운동이 줄어 변비를 겪는 노인이 많다. 변비가 심해지면 복부 팽만, 장폐색, 소화 불량 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힘을 주다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낙상 위험도 높아진다. 이처럼 노인 변비는 여러 신체적 부담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과 식이섬유 섭취, 규칙적인 운동, 배변 습관 관리, 그리고 필요시 의사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 불일이 없다’ 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

.....

1.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 펙틴 성분은 위장 운동을 도와 정장 작용을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 물 2컵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변이 부드러워진다.
2. 사과껍질에 있는 케르세틴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의 노화를 막는다. 뇌세포 파괴를 막는 케르세틴 성분은 기억력 저하의 주범인 코르티솔을 줄여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를 억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3. 사과에 함유된 플라바놀의 한 종류인 플라반-3-올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심장 건강은 물론 뇌졸중과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된다.



## 4. 한숨을 쉬면 복이 나간다면?

한숨을 자주 쉬면 복이 나간다는 옛말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한숨은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한숨 호흡법’은 폐 속 작은 주머니인 폐포가 쭈그러들지 않고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호흡을 깊숙이 전달하는 효과를 낸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 몸이 이완되면서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화가 나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한숨이 나오는 이유도 몸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의 일환이다.

.....

1.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다. 이때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도록 깊게 공기를 폐까지 채운다.
  2. 폐가 완전히 차올랐다고 느낄 때 잠시 멈춘다.
  3. 입을 통해 숨을 천천히, 길게 내뿜는다. 들이마실 때보다 길게 내뿜는 것이 중요하며, 배에 놓았던 손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면서 진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5분 계속 반복하면 된다.
- 한숨을 내뿜을 때 호흡 속도가 느려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낮아져 심장 질환 위험도 낮출 수 있다.



## 5. 종아리 마사지로 내 몸 지키기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리며, 하체에서 고인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종아리 근육을 적절히 자극하고 마사지하면 전반적인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몸이 따뜻해져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노인에게 도움이 된다.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 부종과 저림 증상이 완화되고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을 줄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건강한 사람의 종아리는 고무공처럼 탄력 있고 적당히 따뜻하며 부드럽다.

.....

1. 따뜻한 수건으로 종아리를 2~3분 덮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2. 손바닥 전체로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쓸어 올린다. 10~15회 반복하면 혈액과 림프가 위로 흐르도록 도와준다.
3.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고, 근육을 2~3분 정도 가볍게 주물러 준다.
4. 엄지손가락으로 발목 안쪽 복숭아뼈 위(삼음교)나 종아리 중간 부분을 5초간 눌렀다 떼기를 5~10회 반복한다. 혈액 순환과 다리 저림 완화에 효과가 있다.
5. 의자에 앉아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펴기를 10회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되면서 시원해진다.



## 6. 두드려서 건강해지기

**머리를 두드리기**  
머리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려주면 두피의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머리가 한결 개운해진다. 두피 근육이 자극을 받아 긴장이 풀리고,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집중력이 회복되는 느낌을 준다.

**눈 운동하기**  
눈동자를 좌우, 상하,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운동은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 빠진 눈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눈을 가볍게 덮어주면 눈의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줄어든다.

**얼굴 두드리기**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볍게 두드려주면 얼굴 부위의 혈액순환이 촉진된다. 그 결과 피부가 따뜻해지고 혈색이 좋아지며, 표정근이 자극되어 긴장이 완화된다.

**박수 치기**  
손바닥을 힘 있게 마주 치면 손바닥과 손끝의 신경과 혈관이 자극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또한 단순한 동작임에도 리듬감과 자극이 있어 기분을 환기시키고 스트레스 완화에 도 효과적이다.



# 북가주 음대 동문회장 맡은 2004학번 이윤정 동문

2004학번 이윤정 동문이 서울대 음대 북가주 총동문회 회장을 맡았다. 비록 음대 동문회장이지만 2000년대 학번이 동창회 회장을 맡은 건 미주 서울대 동창회 사상 처음이다.

이윤정 회장은 “올해 초 동문 음악회 연주자로 선발됐다가 회장직까지 맡게 됐다”면서 “2006년 시작된 동문 음악회가 올해로 10년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젊은 동문들에게는 다양한 무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동문 음악회를 지역사회로 넓혀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윤정 회장은 “특히 지난 9월21일 열린 동문 음악회는 97학번부터 13학번

### “젊은 동문들에게 무대 경험 제공하고 음악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어”

까지 다양한 연배의 동문들이 참여했고 동문들의 후원 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한인회 등 지역 사회의 관심도 높았다”면서 “앞으로 동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음악으로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북가주 음대 동문회는 그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인 음악도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동시에 공연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장학금 콘서트를 비롯해 미

국은 물론 유럽과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음악인들을 초청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비르투오조 콘서트, 베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동문들이 중심이 된 동문 음악회 등을 번갈아 개최하며 서울대 출신 음악인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 현재 북가주 음대 동문 주소록에는 70여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이윤정 회장은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신시내티 음대(CCM)에서 석



사와 박사 과정을 했으며 한국에 귀국해 서울대를 비롯해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지난해 결혼을 하면서 다시 베이 지역으로 돌아왔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

## 포닥 모임에 선배들 초청 ... 하하호호~ 애기꽃 활짝

### 샌디에고 지부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지난 8월 29일(금)에는 기존 포닥 모임을 확대하여 동문 전체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배 동문들께서도 다수 참석해 주셨고, 새로 합류한 동문들까지 함께하여 총 28명이 모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멕시코 음식과 함께 맥주, 모히또, 마르가리따 등 다양한 음료가 곁들여져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형식적인 자기소개 시간을 따로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참석한 동문들과 기존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따뜻한 답소를 나누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대화에 폭 빠져 있다 보니 정작 기념사진을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임이 끝난 뒤에야 깨닫고, 부랴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다보니 단체 기념사진 찍는 것을 깜박, 뒤늦게 부랴부랴 찍은 몇 장의 샌디에고 동문 모임 사진들.



랴 몇 장의 사진을 찍으며 아쉬움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그만큼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교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는 뜻깊은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 오신 동문들과 기존 동문들이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만남이 동문 간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하고 든든한 네트워크로 이어지기를 기대

합니다. 끝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행사에서도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 위트 있는 초대글과 행사 후기 ... “나도 가고 싶네”

### 90학번대 4명 포함 부회장단이 7명 총무는 2005학번, 돌아가며 행사 주관

샌디에고 동창회는 80학번인 박상호(지대) 회장을 중심으로 강중구(경영학과 82), 남궁경헌(경영학과 88), 강인태(물리학과 90), 이원익(공대 94), 박성주(인문대 95), 김상태(공대 96), 이상문(의대 02) 동문까지 80학번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90학번을 거쳐 2000년대 학번까지 7명으로 부회장단을 꾸리고 총무는 2005학번인 김단비(약대) 동문이 맡고 있다. 명실상부 젊은 동문들이 이끌어가는 동창회다.

부회장단과 총무가 돌아가며 행사를 주관하고 행사 두어달 앞서 지부 동문 전체에게 이메일로 초대글을 보낸다. 지난 8월29일

열린 ‘신규 포닥 후배들과의 맥주 모임’을 알리는 이메일 공지를 보면서 이런 초대글을 받으면 나도 가고 싶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장이 작가여서 그런지 초대글은 위트가 있다. 9월27일 조각 작품 전시장을 방불케하는 박윤정 교수의 집, 저녁 노을이 내려앉은 야외에서 열린 ‘박윤정 교수님 미술 강좌’ 행사는 사진까지 첨부하면서 흥미로운 행사가 될 것임을 예고해 참여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행사 후기를 동문 전체 이메일로 발송한다. 위에 소개한 8월 행사 후기도 동창회가 동문들에게 발송한 후기를 그대로 실은 것이다. 샌디에고 지부의 8월 행사 초대글을 소개한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무더운 여름 7월의 한복판으로 달려가는 여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집행부는 더운 여름의 기승이 누그러지길 한참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시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8월말과 9월의 모임을 소개합니다.

### 8월 행사: 신규 포닥 후배들과 맥주 모임

원래 이 행사는 학생들과 집행부 소수가 모이는 자리였으나, 동문 전체로 확장합니다. 더위가 물러가기 시작하는 8월말의 금요일 저녁으로 정했습니다. 새로 가입한 동문 & 공부하는 후배들과 선배들 간의 부담 없는 인사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멕시코 타코 집 야외석 전체를 대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 주관은 총무 김단비 (약대 05 약대) 동문입니다.

날짜: 8월 29일, 금요일  
시간: 오후 6시 00분 - 자정(???)  
장소: El Pueblo Mexican Food & Bar - Carmel Valley  
주소: 5965 Village Way e107, San Diego, CA 92130  
참가비: 1인당 \$20 (포닥 & 학생: 무료)



무지막지한 적자를 무릅쓰고 참가비를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가능한 메뉴에 있는 모든 안주도 제공하려 합니다. 술주문은 Happy Hour 인 6-7시를 집중 공략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3번째 맥주잔을 들고 계시는 분들께는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지갑을 털어 찬조금을 감탈할 계획입니다. 2달만에 반가운 동문들이 만나는 기회이니 많이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8월 더위가 끝나가는 샌디에고의 아름다운 저녁에, 만나고 싶었던 얼굴들과 끝없는 대화로 밤을 지새웠으면 합니다.

# 예일대 음대생 7명 새로 합류... 더욱 젊어진 동창회

## 커네티컷 지부

박현아 미주 사무총장  
모임 참석해 유대 강화



커네티컷 지부 동문들이 지난 8월30일 고 유시영 동문 부인인 유은주 선교사 집에 모였다. 이날 모임에는 예일대 음대에서 공부하는 학생 6명이 새로 참가했다.

커네티컷 지부는 지난 8월 30일 고 유시영 동문의 부인인 유은주 선교사 댁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늦여름의 화창한 날씨 속에 유은주 회원의 갤러리 분위기의 새 집에 동문 가족 22명이 모여 정담을 나누며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예일대에서 음악 석사과정과 전문 연주자 과정을 밟고 있는 7명의 후배들이 새롭게 합류하고 박중용(약대 61), 박명희(문리대 사회학과 64) 부부도 참석해 만남의 반가움을 더했다.

이날 모임에는 또 미네소타 지부 문성인 회장과 서울대 미주동창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그의 부인 박현아 동문이 멀리서 찾아와 미주동창회의 현황과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면서 미주동

창회와 지부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커네티컷 지부에서는 유은주 선교사가 지부 동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1만 달러를 기부해 향후 절차를 거쳐 선

발할 예정이다. 미주동창회도 젊은 동문들의 모임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 커네티컷 지부 동창회의 젊은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취재=임현숙(공대 83)

## ‘동문 아닌 동창회 일꾼’ 커네티컷 지부 유은주 여사 “우리 집에서 예일대 학생 동문들 콘서트 열어요”

동창회가 잘 되려면 우선 누가 보기에도 사람이 참 괜찮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며, 동창회 일이라면 열일 마다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서는 열혈 동문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열혈 동문 한 명이 마음을 내면 다른 동문들이 힘을 보태면서 어느새 서너 명의 준열혈 동문이 생겨나고, 그 에너지가 번져 나가면서 모임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된다.

커네티컷 지부의 그런 열혈 일꾼은 유은주 사모님이다. 동문이 아니라 일꾼이다.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다. 지역 동문들을 수소문해 일일이 연락하고 집으로 초대해 가면서 커네티컷 지부를 만들었고, 투병 막바지 병원 생활 와중에도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일을 했던 남편 고 유시영(문리대 물리학과 68) 동문이 얼마나 서울대 동창회를 사랑했는지 알기에, 그 동창회를 살리기 위해 유은주 여사는 동문 보다 더 열심히 동창회 일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그의 집에 또 다시 커네티컷 지부 동문들이 모였다. 예일대 음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 동문 7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예일대 학생 7명은 그가 소재를 파악해 초청한 젊디 젊은 동문들이었다. 유은주 여사는 갈비를 굽고 나물을 무쳐 이들을 대접했고 학생 동문들은 유 여사와 선배들의 따뜻한 환대에 타국 생활을 하며 쌓였던 외로움의 반은 덜 수 있었다.

이날 유 여사는 학생들에게 음악회를 위해 집을 개방하겠다는 뜻



유은주 여사(왼쪽에서 네번째)가 지난 8월30일 집으로 초대한 예일대 학생 동문들과 포즈를 취했다.

### 모금액은 서울대 이름으로 예일대에 기부 지부 활성화 위한 장학금도 1만 달러 내놔

을 전했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9월 27일 유 여사의 집에서는 홍수연(피아노), 이지민(바이올린), 김현지(첼로) 동문이 연주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청중은 유 여사가 살고 있는 우드브릿지 럭셔리 빌리지 주민들로, 40명에 가까운 은퇴한 미국인이 음악회에 참석했다.

이날 음악회가 뜻깊었던 것은 홈리스를 위한 모금 콘서트였고 학생들은 이 연주회를 시작으로 몇 명씩 돌아가며 졸업 때까지 유 여사 집에서 연주회를 열고, 모금한 돈을 서울대 이름으로 예일대 홈리스 지원 학생 클럽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또한 유 여사가 제안한 아이디어였다.

유 여사의 집은 아래층과 위층이 트여 있어 천장이 높고, 거실에는 크고 작은 30점에 가까운 그림이 걸려 있어 마치 갤러리 같다.

“남편이 예일대 신학대학 내 선교

센터 이사를 10년 넘게 하면서 안식년으로 온 선교사들이 그런 그림을 사서 모은 것이 30여점 돼요. 그분들을 도와려고 산 것들인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그 그림들을 내걸어 갤러리 처럼 꾸몄어요.”

집 안이 갤러리 같다면 집 밖은 꽃밭이다. 지난 3월 새 집으로 이사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꽃밭을 가꾸는 것이었다. 예전 집도 입구 길엔 예쁘게 핀 코스모스가 하늘거리고 마당은 온통 꽃으로 가득했는데, 새 집에도 우선 코스모스를 심었다. 유 여사는 꽃을 보며 발길을 멈춘 동네 주민들과 친해졌고 주민들에게 음악회 개최를 알린 지 하루만에 42세대 주민 중 27명이 참가하겠다고 얼마를 기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은주 여사는 지난 6월 미네소타에서 열린 평의원 회의에 참가해 커네티컷 지부 동문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 달라며 미주동창회에 1만 달러를 기부했다. 앞서는 미주동창회 장학프로그램을 후원하는 1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유은주 여사는 솔직히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어려움도 털어놨다. “남편 떠나고 3년 가까이 동창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나름 애를 썼는데 동문도 아닌 제가 계속 이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지난 평의원 회의에 가서는 동문 부부들 보면서 남편 생각이 많이 나서 호텔방에 들어가 많이 울었어요.”

유은주 여사는 2002년부터 예일대 인근에서 노숙자 사역을 해오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한 공로로 뉴헤이븐 시장과 코네티컷 주지사가 수여하는 상을 비롯해 여러 공로상을 받았다. 20년 넘게 노숙자들을 먹이고 돌보면서 몸과 마음에 새겨진 따뜻한 봉사 정신이 서울대 동창회 봉사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숙자 사역은 2022년말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그만 뒀다.

# 주식 사기 전 기업의 연간 보고서 읽어보셨나요?

## 박현아 동문의 주식 투자 이야기

이 사회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고 미국에 유학하여 아이를 키우면서 재무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지난 이십여년간 기업과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녀 교육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글을 통해 그 개요를 소개하고자 한다.



박현아 (공대 88)  
CUNY브루클린 대학  
재무학과 석좌 교수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 체인인 월마트와 타겟, 그리고 뉴욕증시에 상장한 한국의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지는 다양한 질문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유형은 과학적인 문제로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이고 이는 거의 모든 시장 상황에 다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분산 투자가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유형의 문제이다.

두번째 유형의 문제는 투자자의 철학과 성향에 대한 것이어서 과학 문제와 달리 한 가지 답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주식들에 어느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지가 이에 해당한다.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중요하지만 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분석할 때 회사를 두가지 의미의 “사람”- 조직원 개인(natural person)들과 공동체로서의 법인(juridical person) - 으로 바라보면 유용한 답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는데 필자는 이런 기업 분석 방법을 인본주의 재무학(Human Capital Finance)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오백대 기업은 미국 경제의 대표 선수들이라 볼 수 있는데 한 기업당 평균 직원수는 작년 말 기준 대략 육만명이다. 기업과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직원 개개인의 능력 뿐 아니라 잘 정립된 법인의 목적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면서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함께 발전하는 조직문화의 형성과 리더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똑똑한 개인들이 많이 모여있다 하여 반드시 우수한 조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많은 임직원들이 법인이라는 한 “사람”이 되어 잘 정립된 목표를 향해 단합이 잘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조화롭게 일해 나가는 것이 좋은 회사이며 주식을 사는 것은 여러 다른 주주들과 더불어 그 법인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법인이 무사히 잘 살아가기에 필요한 돈을 벌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잘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주인들의 역할이다.

그런데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라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돈만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부모는 거의 없는데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를 물으면 많은 분들이 주가가 오를 것

을 기대하기 때문이라 하며 그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모든 상장기업들은 분기마다 금융감독 기관인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를 무료로 찾아 읽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서류에 보면 각 법인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결정들을 해왔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월마트(WMT)가 지난 3월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아껴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 (Help people save money and live better)”

객이 내가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십만여명의 임직원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연간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연중무휴 전국적 무료 당일배송 (free one-day delivery nationwide 365 days a year)이나 클릭 한번 하고 집 밖에 내놓기만 하면 되는 쉬운 반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인력과 자금 조달이 어떻게 장기간 지속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런 요인들이 법인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준다.

유럽의 대형 유통 체인 Lidl 및 Kaufland를 가진 슈와르츠 그룹 (Schwarz Group)의 목표와 전략은 미

운 투자자들 중 한 분인 워렌 버핏이 평생 가장 많은 시간을 쓴 일들 중 하나가 많은 기업들의 연간 보고서를 열심히 읽는 것이었다 한다.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열쇠가 그 보고서들에 있는데 그것을 잘 살펴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그 주요 원인은 대학에서 재무학 교과 과정을 설계할 때 주로 적용하는 가설이 기업에 대한 이런 모든 정보가 이미 모두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 이를 분석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 때문인데 이로 인해 우수한 경영대 졸업생들조차 이런 보고서를 자세히 읽고 분석하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우리가 어떤 청소년이 직접 쓴 자기 소개서를 잘 읽어 보면 그의 가치관과 말과 행동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며 다른 이들과 더불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듯이 법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와 전략과 행동과 그 결과들에 대해 쓴 보고서를 살펴 보면 그 주식을 사는 것이 좋을 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백 오십여년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저술하며 노동의 전문화를 통한 자본의 축적을 강조한 이래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 줄어들어왔고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 아래 조직 문화와 리더십의 영향을 받으며 법적으로 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법인”들의 역할은 계속 크게 증가해 왔다. 따라서 경제와 사회에서 점점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큰 법인들의 목표와 행동이 각 국가 전체 구성원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크듯이 법인의 성장에는 주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식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전에 연간 보고서를 잘 살펴서 그 법인이 어떤 목표로 어떤 전략을 세워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파악하여 성공할 만한 “사람”들을 잘 가려낼 수 있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때 경제 시스템이 좋은 대표선수 법인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상장 기업이 감독 기관에 내는 보고서 보면  
기업 목표와 전략, 실행 결정 파악할 수 있어  
자녀 교육을 하며 얻은 교훈으로 분석하면  
성공 가능성 판단해 현명한 투자할 수 있어

을 목표로 이백 십만 여명의 임직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어떤 활동들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유통업계 기업인 타겟(TGT)은 목표의 구체성 및 전략과의 연계성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요인이 주식 시장에서의 성과 부진을 설명하는 요인이 된다. 지난 3월에 SEC에 제출된 연간 보고서를 보면 타겟의 기업 목표는 “모든 가족들이 일상 생활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을 돕는 것 (Help all families discover the joy of everyday life)”이며 이를 위해 고객들에게 패셔너블하고 차별화된 상품들과 생필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 (fashionable, differentiated merchandise and everyday essentials at discounted prices)하고자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의 대표적 유통기업인 쿠팡(CPNG)의 경우는 그 목표가 “유통의 표준을 세계적으로 다시 정의해서 고

국이나 한국의 기업들과 매우 달라서 “수십억명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그 기업이 보유한 “독특한 에코 시스템이 생산부터 유통과 재활용 및 디지털화까지 전체 벨류 사이클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인본주의 재무학에서는 조직원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에 관련된 인적자본(individual human capital)은 성과급 자료를 이용해서 계량화하고 법인 전체로서의 인적 자본(juridical human capital)은 연간 보고서의 텍스트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표와 업적에 대해 기록하는데 도움이 되듯 상장 기업이 자신의 목표와 성과를 기록한 연간보고서를 잘 읽어보면 그 법인이 앞으로 얼마나 성공적인 “사람”으로 성장해갈 수 있을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성공적이고 지혜로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싱턴주 지부



장미 100 송이로 만든 생일 축하 화환. 화환 속의 사진은 2007년 송년회에서 장석주 동문과 부인 김옥영 동문. 워싱턴주 동문들이 모여 장석주 동문의 100세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 “장석주(의대 47졸업) 선배님, 100세 생신 축하드립니다”

장석주(의대 47) 동문의 100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9월 7일 시애틀 유니버시티 하우스에 워싱턴주 동문들과 장석주 동문의 가족이 모였다.

동문회(회장 이정관) 임원들은 하나된 마음과 손길로 뜻깊은 잔치를 정성껏 준비했고 장석주 대선배님은 학자로서 그리고 서울대 동문으로서 살아오신 열정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들려주며 즐거운 자리에 소중함을 더했다.

동문회는 이날 케이크와 떡, 백송이 장미화환을 준비했다. 김재훈(공대 72) 동문 댁에서 김명호 여사와 송은주(간호대 85) 동문이 5시간 동안 정성 들여 장석주 동문 부부의 사진이 들어 있는 장미 화환을 만들었다.

케이크는 이명자(간호대 74) 동문이 축하의 마음을 담아 특별주문했고 이정관(농대 83) 회장과 최현주(건축학과 89) 동문이 정성껏 상차림을 했다. 이길송(상대 57) 동문 가족 안문자(수필가) 여사는 장석주 동문에게 줄 꽃다발을 손수 만들어왔다. 장석주 동문 댁에서는 샴페인, 커피, 차, 과일 등을 준비해 잔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이날 장석주 동문과 부인 김옥영(문리대 52) 동문 그리고 장 동문의 아들, 딸, 손자가 이정관 회장과 임현민(공대 84) 전 회장을 포함한 24분의 동문과 가족들을 맞이하면서 잔치는 시작됐다.

장석주 동문은 감사 인사와 함께 후배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 동문회서 케이크·꽃다발·떡 등 정성껏 준비 백송이 장미화환은 5시간 걸려 직접 만들어

따님과 아드님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데 대해 동문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케이크 커팅 및 생일 축하노래에 이어 이양춘(공대 52), 이길송(상대 57), 최준한(농대 58) 등 동문 한분 한분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긴 세월 함께 쌓아왔던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이에 화답해 장석주 선배님은 후배 동문들의 100세 생일 행사에 꼭 참석하겠다는 약속으로 훈훈한 인사자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김재훈 동문은 추억이 담긴 옛 사진들로 카드보드 과일을 만들어 멋진 음악과 함께 감상할 수 있게 했는데 해설까지 곁들인 덕분에 참석한 동문들은 그동안 함께 어울리며 웃음꽃을 피웠던 행복했던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었다.

다음은 장석주 동문의 약력이다. 1925년 8월31일 서울에서 태어난 장 동문은 1947년 서울대학교에서 의학과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전쟁 당시 민간 의사로서 부산의 유엔군 야전 병원에서 근무했다. 1953년 도미해 뉴욕 주립대학 신경정신과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1959년 동문인 김옥영 여사와

결혼해 커네티컷 교외에 정착해 세 자녀를 키웠다.

장석주 동문은 국제 문화 정신의학 분야의 괄목할만한 선구자로서 초기 한국 정신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모리타 치료법, 한중일 심리학의 문화적 맥락, 그리고 꿈, 문학, 예술, 노화의 문화교섭적 탐색 등에 관한 주제의 글을 집필했다. 정신의학과 의사로서 다수의 직책에서 일했으며, 1972년부터 1985

년까지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에서 임상 조교수로 봉직했고, 후에 노화연구 연계 위원회 회원으로 예일대학에 복귀했다. 이 분야에 관한 관심을 통해, 2006년 시애틀로 이주한 후 서울대학 동문회의 시니어 클럽을 창립했고 2009년 지역 소규모 행사로 시작되었던 시니어 클럽의 포럼은 김재훈 동문의 노력이 더해져 미국과 한국 지역을 포함하는 SNU Forum으로 성장확대되었다.

장 동문의 장남은 시애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차남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장전문의이며, 딸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보조금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글=박한규 (공대 91)

사진=최현주 (건축학과 89)



장석주 동문의 100세 생일날에 모인 가족들. 8월31일 카미노 아일랜드에서 온 가족이 모였다.

## 소모임 골프 동호회 만들고 동문 전체 첫 골프대회 열어

올해 동문회 내 소모임 활성화 계획으로 시작한 서울대 워싱턴지부 동문 골프회가 지난 3월 동호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해 현재 20명 가까운 동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3월 셋째 주 첫 골프모임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매달 2~3개 팀을 만들어 골프 모임을 해왔고, 지난 9월20일에는 워싱턴주 지부 전체 동문들을 대상으로 제1회 추계 워싱턴 동문 골프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1명의 게스트를 포함해 총 16명이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시니어 포럼을 제외하면 워싱턴주 동문회에서 가장 액티브하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동호회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토요일 오전 11시 이번 행사장인 Tukwila에 소재한 Foster Golf Club에 모두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고, 11시 30분 티오프를 시작해 오후 4시30분쯤 라운딩을 마치고 골프장 근처 Simply Thai 레스토랑으로 옮겨 식사를 하며 서로의 소감을 말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최연장자가 김의철(농대 73) 동문으로 70학번대가 3명, 80학번대가 4명, 90학번대가 7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2000학번 이현규(공대) 동문이 가장 젊은 동문으로 참석했다. 임현민 전 회장은 골프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식사 시간에 조인해 자리를 더 빛내 주었다.



워싱턴주 동문들이 9월20일 제1회 추계 동문 골프대회를 열고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 선후배 동문 18명, 골프 기량 겨루며 친목 다져

가을의 문턱을 넘어, 아침 기온이 50도 아래로 뚝 떨어졌던 지난 9월 6일 토요일,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어우러진 좋은 날씨 속에 시카고 지부(회장 정성일, 공대 86) 동문들이 힐데일 골프클럽에 모여 2025년 추계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바쁜 일정에도 18명의 동문들이 5개 조로 나뉘어 기량을 겨뤘다. 이날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선보인 서상현(의대 65) 동문이 영예의 그로스 1위를 차지했으며, 핸디캡을 적용한 넷 1위는 한재은(의대 59) 동문에게 돌아갔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80년대 이후 입학한 젊은 동문들이 대거 참여해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젊은 동문들의 지속적인 참여는 매년 10여 명의 일리노이주 대학생들에



지난 9월6일 시카고 동문들이 힐데일 골프클럽에 모여 추계 골프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80년대 이후 학번들도 많이 참여했다.

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지역 한인 사회에 봉사하는 동창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를 마친 후 동문들은 샴버그의

한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즐기며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애쓴 김훈태(사회대 84) 동문이 참가자 모두에게 푸짐하고 다양

한 선물을 나누어 주며, 서로 격려하고 우애를 다지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 대회를 마무리했다.

글=이준수(공대 76)·사진=소진문(치대 58)



로키산맥 관광의 시작인 레드 락 파크 앤 암피시어터에서 포즈를 취한 시카고 골든클럽 동문들.



여행 마지막날 덴버 식물원을 찾은 동문들.

# 평균 80세 청춘들, 4박5일 덴버로 즐거운 여행

시카고 지부 골든클럽은 매년 여행을 떠났다. 올해는 4박 5일간의 콜로라도 덴버 여행으로, 48명의 동문들이 깊어가는 가을만큼 풍성한 추억을 만들었다. 한 분의 안타까운 건강 문제로 49명에서 48명이 되었지만,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즐겁게 떠났다. 이번 여행은 김재환(사대72) 동문이 운영하는 샤프 여행사의 세심한 가이드 덕분에 더욱 편안하고 알찬 시간이었다.

가장 젊은 74학번(70세)부터 최고령인 53학번(91세)까지, 평균 연령이 80세에 육박하는 23명의 동문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뻘뻘한 일정을 건강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에 감탄했다. 진정으로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열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첫째 날 (9월 9일): 덴버에서의 첫 만남**  
덴버 공항에 도착해 Golden Corral에서 든든한 점심을 먹고, 콜로라도 주청사(Colorado State Capitol)를 방문했다. 'Mile High Marker'가 있는 계단에서 모두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며 첫 번째 추억을 남겼다. 저녁에는 외국인 운영하느 KPot BBQ Korean Restaurant에서 푸짐한 한식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며, 낯선 땅에서 한국 음식의 인기를 실감했다.

**둘째 날 (9월 10일): 로키 산맥의 장엄함 속으로**  
본격적인 관광의 시작은 Red Rock

## 최고령 53학번까지 골든클럽 동문 · 가족 48명 로키산맥 장엄한 풍경 즐기며 따뜻한 우정 나눠

Park & Amphitheater에서였다. 붉은 사암의 웅장한 모습에 모두가 압도당했다. 이어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Rocky Mountain National Park)으로 향하기 전, 산 중턱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Stanley Hotel에서 품격 있는 점심을 즐겼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로키 산맥의 장엄한 풍경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해발 3,595m의 Alpine Visitor Center에 도착해서는 모두 고산증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 높이에서만 볼 수 있는 경이로운 풍경에 힘든 줄도 모르고 감탄했다.

**셋째 날 (9월 11일): 아찔함과 신비로움의 연속**  
오전에는 미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고, 이어 신들의 정원(Garden of God)에서 신비로운 붉은 바위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점심 식사 후 로얄 협곡(Royal Gorge)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현수교를 걸으며 깊은 계곡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일부 동문들은 곤돌라를 타며 경치를 감상했으나,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갑작스러운 비바람과 번개 속에 곤돌라가 멈춰 서는 아

찔한 순간을 겪기도 했다. 다행히 신속한 대처로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 동문들의 끈끈한 우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넷째 날 (9월 12일): 고대 인디언 유적과 파이크스 피크

오전에는 Manitou Cliff Dwellings을 방문해 기원전 1200년부터 서기 1300년경까지 만들어진 인디언들의 놀라운 건축물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점심 식사 후에는 파이크스 피크 등산 열차(Pikes Peak Cog Train)를 타고 해발 4,300m가 넘는 정상에 올랐다. 정상의 추위와 고산증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따뜻한 커피와 도넛으로 추위를 녹이며 콜로라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펼쳐진 장대한 풍경을 가슴에 담았다.

### 마지막 날 (9월 13일): 아름다운 꽃들과 작별 인사

여행의 마지막 날, 덴버 공항으로 가기 전 덴버 식물원(Denver Botanic Garden)에 들렀다. 아름다운 날씨 속에 만개한 꽃들을 보며 동문들과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4박 5일의 여정을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이번 여행이 더욱 특별했던 것은 동문들의 따뜻한 우정 덕분이었다. 홍청일(약대 57) 선배님과 소진문(치대 58) 선배님께서 전문가 수준의 사진을 찍어 카톡에 공유해주었다. 버스 이동 중에는 연경자(약대 65) 동문의 재치 있는 빙고 게임 진행으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조중행(의대 63) 동문이 한시와 영시를 낭송하며 지식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인과 한국인의 질병 차이에 대한 유익한 건강 정보도 공유해주었다. 조봉완(법대 53) 선배님은 넷플릭스 드라마에 출연할 손자 자랑으로 모두의 미소를 자아냈다.

지루할 수 있었던 버스 안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채워준 모든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최고의 식당으로 우리를 안내해준 가이드 김재환 동문과 한상필 씨 덕분에 매끼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많은 어르신이 함께한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협조해준 덕분에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동문 여러분의 뜨거운 우정과 건강에 감사드린다. 다음 여행에서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글=안창혁(사대 65)  
사진=홍청일(약대 57), 소진문(치대 58)



미얀마 음악학교를 세운 김토마스(음대 79) 목사가 자선음악회에 와준 청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자선음악회에 출연한 동문 음악인들이 특별 출연한 김성길 서울대 성악과 명예교수(왼쪽에서 세 번째)와 한자리에 모였다.

# 동문들이 부른 나눔의 노래, 미얀마에 울려 퍼지다

## 필라델피아 지부

## 가을 자선음악회 성황 ... 미얀마 음악학교 설립 후원

가을의 문턱에서 서울대학교 필라델피아 동창회가 주최하고 미주한국문화재단(KCCF)이 협찬한 가을 Benefit Dinner Concert가 9월6일 미주한국문화재단 게스트하우스에서 성황리에 열려 마무리됐다.

이번 음악회는 미얀마 음악학교 설립을 후원하기 위한 자리로, 티켓은 판매 하루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교민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느끼게 했다.

이날 무대에는 서울대 성악과 명예교수인 바리톤 김성길 교수가 특별출연해 큰 기대를 모았다. 또한 그의 제자이자 현 필라델피아 동창회 회장

인 테너 김영석(음대 74), 바리톤 김토마스(본명 김만규, 음대 79), 소프라노 이인영(음대 87), 소프라노 김성지(음대 92)가 무대에 올라 풍성한 화음을 선사했다. 여기에 피아니스트 윤시내와 바이올리니스트 강내윤의 연주가 더해져 한국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가을밤을 수놓았다.

이번 음악회에는 약 30명의 서울대 동문과 40 여명의 지역 교민들이 참석했다. 관객들은 수준 높은 무대에 감동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음악회를 마친 뒤 이어진 저녁 만찬 자리에서 후원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하며 따

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후원의 주인공인 “미얀마 음악학교(DawnDew School of Music)”는 바리톤 김토마스(김만규) 목사가 2002년 북한 공연을 계기로 선교적 소명을 받아 설립한 학교다.

2020년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해 2023년 정식 4년제 학제로 개교했으며, 2024년에는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했다. 김 목사가 학장을 맡아 전임 교수진과 함께 운영 중이며, 현재 8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첫 졸업생 14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미얀마 음악학교는 현재 미얀마 교

육국 정규 대학 등록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최근 15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캠퍼스와 미얀마 최초의 콘서트 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교육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서울대 필라 동창회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이 미얀마 음악교육의 토대를 세우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100여 년 전 이화여대 음악대학의 설립으로 한국 땅에 음악교육과 찬양이 뿌리내렸듯, 미얀마 땅에도 서울대의 선한 영향력이 이어질 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글=김성지(음대 92)



워싱턴 지부 동문 가족이 지난 9월20일 노토웨이 공원에서 가을 피크닉을 열고 게임과 식사를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 워싱턴 DC 지부, 학술 강연 두 동문, 현대 미술 특강

워싱턴 동창회는 2025년 동문 학술강의 시리즈 세 번째 강연으로 “현대미술 알고 보기 + 현대작가 듣고 알기” 특별강좌를 9월 13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비엔나 소재 한인과학자협회(KSEA)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현대미술을 보다 친근하고 흥미롭게 이해하도록 기획된 연속 강좌로, 두 명의 연사를 초청해 이론과 실재를 아우르는 내용을 선보였다. 참석자들에게는 간단한 차와 다과도 제공되었다.

첫 번째 강연 “현대미술, 알고 보면 더 재미있다”는 김리진 아트디렉터(조소 01)가 맡아, 현대미술 감상의 기초와 다양한 감상법을 쉽게 풀어냈다.

두 번째 강연 “다양한 인종과 문화 속 미술: 김현정 작가와 함께하는 현대미술”에서는 김현정 작가(조소 94)가 아티스트 토크 형식으로 자신의 작업 세계를 소개하고, 연계된 작가군과 현대미술의 주요 흐름 및 트렌드를 함께 조망했다.

학술팀(이영중·김희범)은 “이번 특강은 이론적 설명과 현장감 있는 사례 소개를 적절히 결합해 누구나 쉽게 현대미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많은 동문과 가족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취재=한정희(편집위원·미대 81)

를 받았다.

행사 후반에는 피크닉 준비를 위해 애쓴 집행부 후배 동문들에게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다. 선배 동문들은 “재미있고 알뜰하게 행사를 잘 준비해 주어 고맙다.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였다”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가을 피크닉은 동문과 가족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서로의 우정을 다지고 세대 간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하는 즐겁고 유익한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취재=한정희(편집위원·미대 81)

# 동문 가족 80여명, 게임 즐기며 가을 피크닉

## 워싱턴 DC 지부

워싱턴 지부 동창회는 지난 9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위치한 Nottoway Park Picnic Area에서 2025년 동문 가족 피크닉을 열었다.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약 8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게임과 식사를 즐기며 오랜만에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운동회 게임은 미리 준비된 네 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팀 구성은

선후배가 고르게 섞이도록 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했다. 게임 진행은 이영중 동문(화학과 90학번)이 맡아 원활히 이끌었다.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대회도 있었는데 참가자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종이비행기를 접으며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고, 마음대로 날아가지 않는 비행기를 끝까지 멀리 날리려 애쓰며 땀을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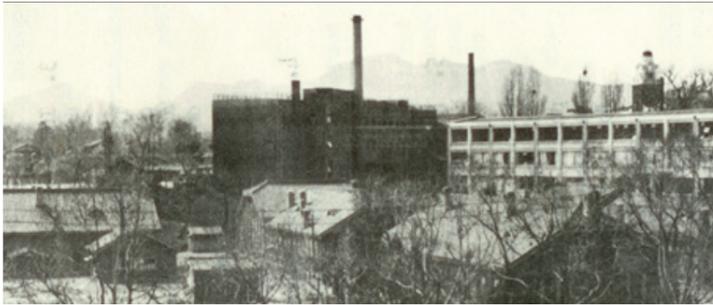
동문들은 승부욕이 가득한 모습 속에서도 서로의 플레이를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는데 송기방 (법대59) 동문이 다트 던지기 경기에서 100점을 기록하며 참가자들의 큰 부러움과 환호

# 수의대를 농대로 병합하는 바람에 눈물 머금고 수원으로

## 김문소 동문이 보낸 수의대 61학번의 대학생활

뉴잉글랜드 지부의 김문소(수의대 61) 동문이 1961년 서울대 수의대에 입학한 61학번 동문들의 첫 만남에서 최근까지의 모습을 담은 추억의 사진들을 미주동창회에 보내왔다. 수의대 61학번 동창회는 자신들을 사공회라고 부른다. 입학년도인 1961년이 단기로 4294년이라 40회로 칭했지만 한자로 하면 '사'는 일사(事), '공'은 공공(功)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공하자"는 뜻을 담았다.

뉴잉글랜드 지부의 김문소(수의대 61) 동문이 1961년 서울대 수의대에 입학한 61학번 동문들의 첫 만남에서 최근까지



위 그림 왼쪽 건물은 준공된 지 1년밖에 안된 수의대 건물이고, 오른쪽 굴뚝 건물은 창경국민학교다. 우측 위 그림 건물은 동물병원과 학생회관 건물로 학생회관에는 탁구대가 있었고, 4H 연구회가 있었다. 우리는 해부학 실습을 밤 9시까지 하기도 했다.



우리가 본 입시 문제에는 '나 보기가 역겨워' 같은 시도 있었고, 풀밭에서라는 200자 원고지를 채우는 작문 시험도 있었다.



1961년 3월 11일 입학 사정회의 결과는 이틀 후 서울대 대학신문을 통해 합격자로 발표되었다. 학림대방 앞에서 너도나도 한 장씩 건네 받은 대학신문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지.



81명의 학우들 모습은 모두가 늙름하고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애송이 대학생이지만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니 대부분 고교 때 사진을 내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학우도 있고 외국인인 간 학우도 있으며 수의사로 일생을 지낸 동문도 있고 수의사가 본업이 아닌 학우도 있지만 모두가 참 멋진 모습이다.



대학신문 제410호 3면(1962년 5월 31일자) 입원한 벗의 밀린 치료비를 위해 일주일 동안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십시일반 모금했다는 내용을 알리는 대학신문이다.



당시 수의대의 농대 병합이 부당하다고 우리는 강당에 모여 결사반대를 결의하였지만 군사정부의 총칼 앞에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그래서 당시 대학신문 기자이던 이흥식은 지흥민과 같이 스코필드 교수를 찾아가 반대에 앞장 설 것을 호소했지만 수의대 많은 교수들처럼 그도 수의대는 수원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수원으로 간 우리는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하숙 또는 자취 그것도 아니면 연착이나 연발이 다반사인 기차 통학을 아니할 수 없었다.



우리가 입학한 것이 1961년 4월인데 9월에 군사 정부에 의해 수의과대학이 농대 수의학 과로 병합되는 불운이 닥쳤다. 우리가 수원에서 공부할 때는 수의대 건물이 없었다. 사진은 우리가 졸업한 후 건립된 수의대 신관(왼쪽), 동물병원(중간), 구관(오른쪽)이다.



우리에게 수의학이 무엇인지 가르친 교수님들이 함께 기념 촬영한 모습이다.

# 수업 빼먹고 놀러갔다 선배들 호출에 운동장 토끼 똥

사공회는 옛 사진을 모으는 작업을 거쳐 2017년 총회때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라는 영상을 선보였다. 61학번들이 태어나던 시기인 1942년을 전후해 1945년 해방을 거쳐 6.25전쟁과 4.19혁명을 겪고 1961년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4년의 대학생활, 1965년 2월 졸업 이후를 사진과 함께 스토리로 엮은 영상으로 어떻게 그 당시 사진을 이렇게 모을 수 있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사진들 중에서 당시 대학생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소개한다.



우리는 매일 계속되는 강의와 실습에 지친 어느 날 학급대표 이흥식을 교실에 남겨놓고 무단으로 수업을 빼먹고 전문성, 권종국 교수를 모시고 우이동에 놀러 갔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등교하자마자 선배들이 강의실에 나타나 우리 모두를 운동장으로 불러 내었지. 그리고는 무례한 놈들이라고 운동장 토끼 똥을 뒤통에 몇 바퀴를 뒀어 힘이 들어 일어서니 마구 머리를 쥐어박기도 했지.



농대 목장에서 외과 실습을 한 후 정창국 교수님(김교형-김석태-박중배-이광일-노병의-김문소-이규본-곽규용-정창국교수-김광선-윤영호-김선일-박중영-김성원-박영수-박중명)을 모시고 찍은 사진이다.



우리는 수원 내려간 후 실습을 제대로 못해 학과장에게 실습비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은 그 실습비를 되돌려 받아서 단체로 설악산으로 우리만의 수학여행을 갔다.



우리와 학생의 일부는 학군단 3기로서 ROTC 교육을 받았지.



1965년 2월 졸업하게 되었다. 농대에서는 수의학과 졸업생도 농대생이니 "농학사(BA)"를 주겠다는 것을 알아낸 후, 지흥민을 포함해 5명이 농대 학장을 면담해 수의학사(DVM)를 주장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이에 오순섭 수의학과장이 앞장서 투쟁해 결국은 수의학사(DVM)를 받고 졸업했다. (사진: 이흥식-이성탁-유소양-박영-김석태-송기홍-김윤진)



어느 토요일 우리는 하늘이 너무 맑고 깨끗해 해부학 실습을 빼 먹고 또 다시 우이동으로 놀러 갔었지. 뒷줄: 이흥식-노병의-박상표-조병왕-최영식-최중기, 앞줄: 김훈삼-김문소-김정성



1962년 늦가을 어느 날은 문리대 마로니에 나무 아래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지. 좌로부터 김인영, 유소양, 박영, 김선일, 이규본, 이승무, 송기홍, 김계방.



졸업 후 오랜만에 동기들이 박중영이 경영하던 농장에 모여 당시 3000평 농장에서 기르던 누에에게 봉뽕 밥을 주기 위해 뽕나무 앞을 다듬었다.



1963년 수원으로 내려간 후 농대 본관 앞에서 임창형 교수님을 모시고 한 컷 찰칵! 좌로부터 김인영, 송기홍, 이영길, 박영, 임창형교수, 김평길, 유소양.



어느덧 세월이 흘러 졸업 40주년이 되었기에 교수님들도 모시고 미국 간 친구도 오게 하여 잔치를 벌였다.



그 후 10년, 이제는 머리도 희끗희끗한 중년과 할배 티가 듬뿍한 모습이다.



졸업 60년을 자축하는 회무 보고를 하는 회장과 회원들

# 고 김병연 박사 추모식 ... 자택에 동문 50여명 모여

## 남가주 지부

“남편은 떠났지만 ‘작가의 집’은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서울대인의 ‘사랑방’으로요.”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고 김병연(공대 68) 박사의 추모식이 9월 6일, 고인의 자택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박사는 지난 6월 28일 서울대 동문 바둑 동호회 ‘서기회’대회를 참관한 뒤 귀가하던 중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고인이 15년 전 개관한 전시 공간 ‘작가의 집’은 그동안 남가주 서울대 동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사랑방으로 자리 잡아 왔다. 미망인 김문희 시인은 “생전에 남편은 (뒷마당에) 별채가 완공되면 준공식 겸 동문들을 초대해 답소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며 “그 뜻을 이어 오늘 이렇게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울먹였다.

채규황(법대 69) 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고인은 헌신과 봉사로 모범적인 동문회를 만들어온 분”이라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 함께 아름다운 동문회를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양수진(간호대 80) 차기 회장은 “저



지난 9월 6일, 김병연 전 남가주 동창회장 추모 행사가 고인의 자택에서 열렸다. 이날 50여 동문이 참석해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단합을 다졌다. 오른쪽 사진은 추모 케이크를 자르는 동문들. 왼쪽부터 양수진 차기회장, 미망인 김문희 여사, 안혜정 동문, 채규황 회장.



## “별채 완공되면 동문 초대하려 했는데...” 미망인, 남편 생전 뜻 따라 자리 마련해

를 처음 동창회로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김 박사님”이라며 “오는 11월 2일 열리는 관악세대 갈라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지난해 경찰의 과잉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양민(공대 76) 동문도 참석해 고인과의 인연을 회상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이명일(

약대 72), 김자성(의대 79) 동문의 기타 반주로 맞춰 ‘메기의 추억’, ‘선구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등 고인의 애창곡을 다 함께 부르며 김 전 회장을 기렸다.

구순을 맞은 이기준, 정인환 동문을 비롯한 원로 선배들도 다수 함께 자리해 고인의 삶과 업적을 추모했다.



기타 반주로 '심열롱'을 이끈 이명일(왼쪽), 김자성 동문.

## 남가주 바둑 동호회 친선 대결 박빙 승리

남가주 서울대동창회의 바둑 동호회인 서기회(회장 임항균)가 지난 9월 17일 LA 작가의 집에서 온누리교회 인싱크 노인대학 바둑교실반(회장 안상철)과 제4회 친선 바둑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서기회가 4대3으로 박빙의 승리를 거두면서 그간 4차 대회 결과 3승 1패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14명과 참관, 후원인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동문 가족 40여명, 미네소타대 수목원에서 가을 피크닉

## 미네소타 지부

미네소타 지부 동문들은 9월 13일 미네소타 대학 수목원에서 가을 피크닉을 했다. 이 수목원은 미국에서 제일 인기있는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 수목원을 통해서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각종 사과가 개발되었는데 잘 알려진 Honeycrisp도 이곳에서 개발된 품종이다.

원래 예약했던 Picnic shelter가 수목원 사정으로 갑작스레 visitor center 대강당으로 변경되었는데 전화위복으로 보다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제까지는 대부분 공원에서 바베큐를 즐기며 야유회를 했는데 이번에 변화를 주어 이용한 수목원에 대한 동문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

약 4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여했고 특히 동문회에 처음 오신 분들과 오랜만에 다시 나오신 분들의 숫자가 비교적 많아 향후 동문회 행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식사 후 자기 소개시간을 통해서 느낀 점 중 한가지는 다양한 분야와 세대를 연결해줄 수 있는 동문회의 가능성이었다. 동문회라는 연결고리 덕분에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 같이 식사하고 얘기를 나누며 값진 간접경험을 할 수 있고 원하면 사적인 관계까지 맺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다음 번 지부 행사는 12월 6일로 예정된 연말총회인데 이번 피크닉에서 새로 만난 모든 동문들과 아쉽게 참석못하신 분들을 다함께 만나기를 기대한다. 글=문성인(공대 88) 미네소타 지부장



미네소타 동문들이 지난 9월 13일 미네소타대학 수목원에서 야유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 불로장생의 꿈, 바이오 산업이 현실로 만들까

SNUAA 9월 포럼

바이오 기술과 산업의 현재와 미래

워싱턴주 시니어 클럽의 김재훈(공대 72) 박사가 주관하는 미주동창회 SNUAA 포럼 9월 강연이 지난 9월 13일 오후 5시(서부 시간) 김인철(약대 70) 박사를 초청 강사로 모시고 '바이오 기술과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인철 박사는 미국 Glaxo Inc. R&D 센터 연구원을 시작으로 LG생명과학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기까지 40년 가까이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일하며 글로벌 신약 개발은 물론 의약산업의 다양한 경험을 소유한 전문가로 이날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깊이있게 설명해 참가 동문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인철 박사가 강연한 포럼 내용을 소개한다.



강사 김인철 박사 (약대 70)  
Kainos Medicine 부회장

킨슨병 같은 만성 질환 및 암·희귀 유전자 질환 치료제 개발에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 기술의 접목이 신약 개발 과정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AI는 방대한 생체 데이터 분석,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임상시험 설계 및 예측 등 전 과정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양자 컴퓨팅은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 단백질 접힘(protein folding) 예측 등 기존 슈퍼컴

조절 기술로, 식욕 억제와 혈당 조절에 기여한다.

- 김 박사는 특히 비만 치료제와 항암제 등 바이오 의약품의 상업적 성과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유한양행의 신약 '렉라사'는 2024년 FDA 승인을 받은 뒤 상반기 매출이 3천억~4천억 원에 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J&J 제품과 경쟁할 수준에 도달했다.

### 바이오산업과 IT 산업의 차이

OpenAI의 샘 올트먼, 엔비디아의 젠슨 황, 구글·아마존·MS·테슬라 창업자들까지 역노화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단시간에 부와 명성을 얻은 이들의 궁극적 꿈은 영생인가? 이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근원적 욕구와 맞닿아 있으며, 바이오산업의 미래 지향점을 보여준다. 역노화 연구는 세포 수준의 재생, 조직 복구, 노화 관련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 수명(healthspan)을 연장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 장기 재생, 인공 장기 개발 등이 활발히 연구 중이며 미래 의학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바이오 산업의 태동

인류의 질병 치료 노력은 인류의 기원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산업화의 본격적인 서막은 1880년대 후반 독일을 중심으로 태동한 '제약산업(pharmaceutical industry)'에서 비롯되었다. 동서양에서 약초 기반의 치료법이 동시에 발전했지만, 서구는 이를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반면 동양은 그러지 못했다. 이후 제약산업은 합성 의약품 개발 중심으로 서구 선진국 주도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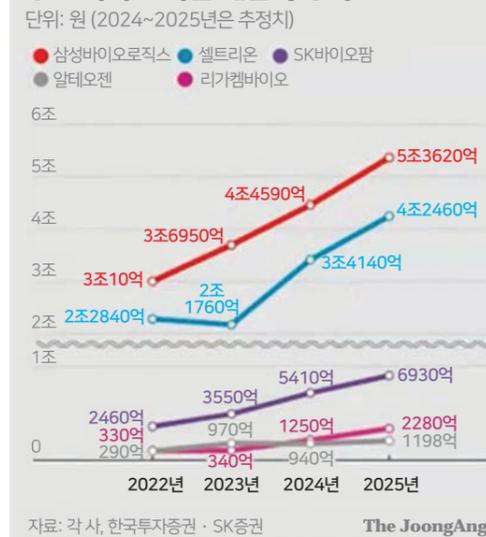
이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1980년대, 미국 UCSF(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허버트 보이어 교수가 개발한 유전자재조합기술(Recombinant DNA technology)은 인간형 단백질과 항체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이 기술의 잠재력을 간파한 젊은 벤처 투자자 밥 스완슨은 보이어 교수를 설득하여 1976년 제넨텍(Genentech)을 창업했다. 1982년 10월, 제넨텍이 인간형 인슐린 개발에 성공하고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바이오(BIO) 산업'의 시대가 열렸다. 1980년대 이전의 '제약산업'은 이제 '바이오제약(Biopharmaceutical) 산업'으로 재탄생했으며, 현재 미국이 이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기술 개발 이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 바이오산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안보를 포함한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은 바이오산업의 국가 안보적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으며, 반도체 산업의 세 배를 넘어서는 경제적 가치가 그 배경이 되었다. 김인철 박사는 이와 관련해 최근 10~20년 동안 바이오산업의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현재 약 2조~3조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 바이오산업의 현재: 첨단 기술 융합과 신약 개발의 도전

1980년 이후 신약 개발 역량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초고속 스크리닝 기술 도입과 2000년대 이후 인간 유전체 지도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과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며, 치매·과

### 주요 바이오 기업 매출액 추이



### 올해 미국에서 독점권 만료되는 주요 의약품

기업명	의약품명	치료 질병	작년 미국 매출액
존슨앤드존슨	스텔라라	건선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67억 2000만 달러
리제네론	아일리아	황반병성, 황반 부종, 망막 정맥 폐색 등	47억 7000만 달러
암젠	프롤리아/엑스지바	골다공증, 암 환자의 근손실 등	43억 9000만 달러
노바티스	엔트레스토	심부전 등	40억 5000만 달러
아스트라제네카	솔리리스	혈색소노, 요독 중추군, 근긴장증 등	15억 2000만 달러

자료: 한국바이오협회, 각 사

## 의학 · AI · 데이터가 융합하는 혁신의 신세계 빅테크들도 앞다퉀 역노화 스타트업에 투자 국가 경제 이끌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

퓨터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난제를 극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김 박사는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AI와 양자컴퓨팅 모두 아직 초기 단계이며, 임상시험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오랜 기간 효과가 미미했거나 부작용이 컸던 영역에서 새로운 치료제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항체-약물 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 암 세포에만 약물을 전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한다.
- 유전자 편집 기술(CRISPR-Cas9):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정확히 교정하여 유전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환자의 면역세포를 조작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혁신적 면역항암법이다.
- GLP-1 기반 기술: 비만 및 당뇨 치료에서 혁신을 가져온 호르몬

김 박사는 IT 산업과 바이오 산업의 본질적 차이를 짚었다. IT 분야는 소수 기업이 혁신 기술을 독점하며 빠르게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지만, 바이오 분야에서는 개별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5~10% 이상 점유하기 어렵다. 또한 바이오산업에서는 여성 연구자와 경영자의 역할이 두드러지며, 한국과 일본에서도 주요 바이오 기업의 CEO로 여성 인재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바이오산업의 미래: 역노화와 인간 수명 연장

제약바이오산업의 궁극적 목표는 항노화(anti-aging)를 넘어 역노화(reverse-aging)로 나아가는 것이다. 미국 NIH 산하 국립노화연구소와 여러 대학에서 진행 중인 연구에서는 기존 약물 중 일부가 동물 실험에서 수명을 40% 이상 연장하는 효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혈관 확장제 성분인 쥐 실험에서 수명 연장을 입증했으며, 이는 장차 인간용 노화 방지 약물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창업자들, 즉

### 한국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도전 과제

한국은 해방 이후 오랫동안 복제품 중심의 제약 산업과 불법 리베이트에 머물렀다. 그러나 1987년 물질특허 제도 도입을 계기로 FDA 승인 신약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벤처 창업 붐과 함께 선진국형 바이오산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현재 녹십자, 유한양행, 셀트리온,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매출 1조 원 이상의 기업들이 성장했고, 바이오 벤처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만 10조 원 이상 기술 수출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중국의 급부상은 한국 바이오산업에 커다란 위협이다. 중국은 자본력과 인적 자원을 앞세워 제약 시장 규모와 연구개발 능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며, 기술 수출액 면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고령화·저출산으로 내수 기반이 약화되고,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규제 환경 미비, 초기 투자 부족, 경직된 문화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김 박사는 한국 바이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 규제 개선, 국제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 사회 전반의 문화적 혁신, 글로벌 인재 유치, 개방성과 실용성 기반의 도전 정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구세대 문화 개선과 인재 중심 정책
-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정책적 유연성
- 정부·민간 협력에 기반한 전략적 투자
- 개혁적 이민 정책과 글로벌 인재 유치

바이오산업은 인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를 이끌 핵심 동력이다. 한국 바이오산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연구기관, 사회 전반의 협력과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 포럼은 바이오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폭넓게 조망하며 국내 연구자와 기업인들에게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 불어와 피아노, 80 앞두고 다시 배우는 기쁨



윤정옥  
(음대 피아노 64)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불란서라는 나라의 새롭고 아름다운 문화와 풍경을 동경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불어를 택했지만 다 잊어버렸고, 10년 전부터는 불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그동안 San Francisco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불어를 배웠다.

나의 조그만 실력으로 그 유명한 Sorbonne에서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여 beginner 학생이 될 수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며 내가 직접 겪은 일을 전하는 것뿐이다. 어쨌든 첫해에는 blue 도장이 찍힌 certificate을 받았다. 그리고 second year에는 진도가 빨라서 힘들게 마치고 돌아왔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수업을 따라 했지만 쉽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보니 이메일로 certificate이 도착해 있었다.

나는 무척 기뻐고, 그것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이번 세 번째 해에는



소르본느 학생으로 3년째인 2025년 7월2일 개강 첫날 학교 입구에 선 윤정옥 동문.

## 소르본느 학생으로 여름 학교 3년째 다녀와 줄리어드 익스텐션에 합격해 매주 수업 받아

매주 시험을 치르는 일이 나에게서 상당히 어려웠다. 그 시험 결과는 내가 예상한 대로 별로 좋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교수님이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 그 class는 99%가 각국에서 온 외국 대학생들이었고, 나 혼자만 senior 할머니였다. First

class에서 각자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이를 말해야 했는데, 나는 secret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내년에 내가 80살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굳이 알려 주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내가 계속 불어 공부를 이어간다면 내년에도 또 도전할 것이다.

나는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공부했고,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와서 학교도 다니고 좋은 피아니스트들과 오랫동안 공부했다. 그러던 중 4년 전, Juilliard에서 extension student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오디션을 준비했고, 마침내 오디션 날이 되었다. 두 곡을 준비했는데 세 명의 교수가 나를 지켜보는 동안, 나는 긴장해서 목표대로 연주를 다 하지 못했다. 오랜만에 시험을 치는 일 있어서 얼마나 떨리던지... 나는 ‘만약 이번 오디션에 합격하지 못하면 피아노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시험이 끝나자 곧바로 2주간 동안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 여전히 연락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나에게 이메일이 도착했다. 첫 문장은 “Congratulations” 였다. 그때부터 나는 줄리어드 익스텐션 student가 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매주 수업을 준비하느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사실 힘이 많이 들지만,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이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든다. 작년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두 학교에서 학생으로 배우고 있는 나는 참으로 럭키하다고 느끼며,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 박평일 동문의 사색 노트

##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간과 죽음 앞에서

### Otherwise

건강한 다리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시리얼과 달콤한 우유와  
흠 없이 잘 익은 복숭아를 먹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개를 데리고 언덕 위 자작나무 숲으로  
산책을 갔다.  
오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누웠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은춍대가 놓인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벽에 그림이 걸린 방에서 잠을 자고  
오늘과 내일을 기약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어느 날인가는  
그렇게 못하게 되리라는 걸.

-미국 여류시인 제인 케니언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일년 전48세 나이로 쓴 시

스위스 출신 미국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Elizabeth Kubler-Ross)는 죽음에 대한 연구로 평생을 보냈다. 그녀가 죽음 직전의 350여명 환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토대로 해서 동료 David Kessler와 공동으로 썼던 책중에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인생수업(Life Lessons)’이 있다.

그녀는 죽음 직전의 환자들에게 “죽어가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나?”고 질문을 던졌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첫번째로 꼽은 후회가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았다. 지나고나서 생각해 보니 별거 아니었는데...” 였다고 한다.

그녀는 ‘인생수업’책에서 독자들에게 또 이런 충고를 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과 사랑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

지난 달에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피검사를 위해서 두 차례 병원에 들렀다.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인상이지만 왜 그렇게 환자들이 넘쳐 흐르는지, 세상 사람들이 온통 환자들처럼 착각에 빠지곤 한다. 그 넓은 병원 주차장을 여러차례 돌고 난 후에야 빈 파킹 스페이스를 겨우 발견할 수 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지켜보면 나이, 성별, 인종, 빈부, 신분, 학력, 지위 등과 전혀 무관하다. 질병은 죽음처럼 차별이 전혀 없는 공평한 공산주의자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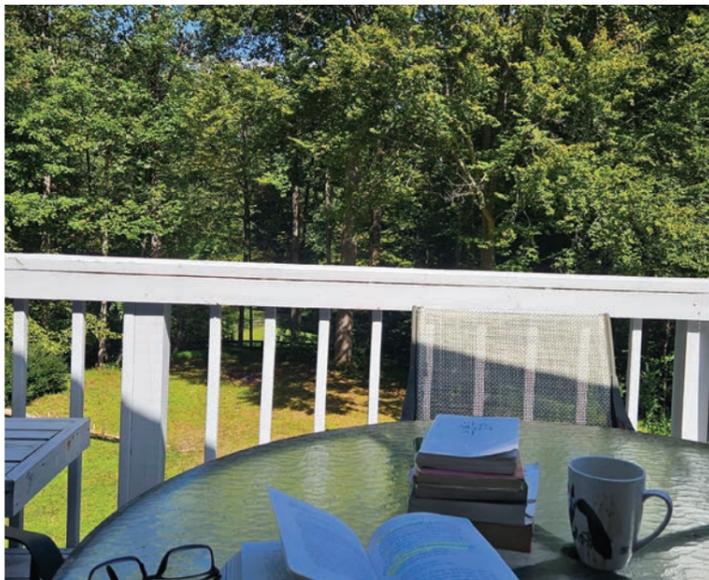
인도 힌두교에서는 시간을 Kali 라고 부른다. 죽음도 Kali 라고 한다. 시간이

곧 죽음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시간과 죽음은 아무 리 애를 써도 붙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다. 그들의 스케줄 대로 흘러갈 뿐이다.

저 수많은 환자들 모두가 언젠가는 더 이상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을 때를 맞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그래도 질병으로 고통속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던 그 시절, 그때가 좋았어...” 하며 그리워 하게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씩씩했다.

시간은, 죽음은, 질병은 우리들을 겸손하게 한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기다리며 제인 케니언의 시를 읽고 남긴 메모



박평일 동문이 집에서 찍은 사진. 책과 커피잔이 보인다.

조중행 동문의 의료 단상



조중행  
(의대 63· 시카고)  
은퇴한 심장외과 의사

2019년 어느 날 필라델피아의 드렉셀 의과대학 병원(전 하네만 의대)을 운영하던 사모펀드(J. Freedman 투자자, 일종의 사채업자 그룹)는 파산을 선고하고 대학병원을 폐업하고 경매, 새로운 임대업 및 건물 개조 작업에 들어갔다. 당연히 지역사회 환자 관리, 의과대학 학생, 수련의 교육에 막대한 혼란과 손해를 야기하였다.

최근 몇 년간 사모펀드(Private Equity, PE)들이 병원이나 의사들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의사 그룹)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한국 교민 사회의 의료를 담당해온 의사들의 그룹도 뉴욕의 한 사모펀드가 인수하여 경영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인수 과정에 거액의 벌금까지 정부 기관에 지불하였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들 사모펀드 전문가 및 투자자들은 운영의 효율성, 시설 현대화를 내세우고 기존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본을 투자하고, 투자된 자본은 의료기관과 의사 그룹의 주요 결정권자들에게도 인수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고 인수 후에는 경영의 주도권은 편

드 전문가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비전문 경영인, 또 의료인들의 비효율적이거나 낙후된 병원의 경영을 쇄신할 수 있는 유망한 대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들과 현장의 우려는 이들의 약속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묻고 있다. 《JAMA》와 《Health Affairs》 등 주요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PE(사모펀드)가 인수한 병원에서는 병원 내 감염, 낙상, 응급 수술 사망률 등 환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들이 악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응급 수술 사망률 비(非)사모펀드 병원보다 42% 높게 나타났다.

업자들 개입 후의 이런 데이터들은 단순히 환자 구성의 문제가 아닌, 병원 운영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임을 암시한다. 흔히 전문 인력의 숫자 감소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인력으로 대체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앞으로의 추가 연구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사모펀드 병원들은 수익성이 높은 수술, 심장 중재술, 고급 영상의학 같은 분야에 집중하는 반면, 응급의료, 소아과, 정신건강 등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향이 짙고, 경비 절약을 위해서 흔히 고액 임금이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저임금 인력으로 대체 또는 감축되며 환자들의 안전은 더 큰 위협에 놓일 수 있고 환자 측이나 일반인들은 이런 현상을 알기 힘들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투자 전략이 의료의 공공성과 충돌한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평균 5~7년 내

에 인수한 회사, 병원 또는 기관을 타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투자자들은 투자액과 이익을 환수해 가고 운영자들도 단기 엑시트(탈출) 전략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수익성 중심의 개편을 밀어붙이게 됨으로써 의료기관은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되는 경우도 흔하고,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건강관리, 의사의 자율성, 의료의 질 향상 등의 목표에 본질적으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곳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도시 빈곤층 지역, 또는 미국 전역의 중소 병원, 농촌 병원 중 다수가 PE 인수 후 서비스 축소 또는 폐업을 겪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최소한의 필수 의료 접근권조차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한 병원에 사모펀드의 자금이 일시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PE의 개입이 흔히 투자자에게는 재정적 이익을, 환자 및 보험사에게는 진료비 증가와 의료 질 저하, 만족도 하락을 가져온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과 급성기 치료 병원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의료는 단순한 시장 재화가 아니다. 생명을 다루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며, 공공성과 윤리성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영역이다. 환자의 숫자, 또 의료자 자본가들의 수익 수단으로 전략할 때,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의사들, 지역사회 전체에 돌아온다.

자본주의 자율 규제하의 미국식 사모펀드의 의료계 진출·직접 참여는 몇 년 지나면 결국 투자자들이 투자

한 자본과 이익의 환수가 목적이 되고 환자를 이익 창출의 도구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폐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환자들(특히 교민들)도,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하는 의사들도 모두 경각심을 갖고 질병 치료 과정에 대한 경영자의 정책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제 정부와 국회, 규제 당국, 의사 단체, 환자 등 모두 사모펀드의 의료 현장(병원, 의사 그룹) 개입에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제도 보완과 진일보한 감시 체계와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무엇보다 “환자 중심”이라는 의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References

1. AMA Journal of Ethics (2025)—Private Equity Strategies in Nonprofit Health Care
2. The BMJ: Borsa, A., et al. (2023). Evaluating trends in private equity ownership
3. AMA Journal of Ethics (2025)—Assessing Quality of Care under PE Ownership
4. Cai & Song, JAMA Policy Viewpoint (2023)—Policy Framework for PE Influence in Health Care The Death of Hahnemann Hospital: May 31, 2021, New Yorker: When a private-equity firm bought a Philadelphia institution, the most vulnerable patients bore the cost.—By Chris Pomorski, May 31, 2021, New Yorker

# 사모펀드의 의료계 진출

# 청계천에서 LA강까지, 기억을 흐르게 하는 도시

조재성 동문의 도시 이야기



조재성  
(공대 건축학과 77)

1991년 영화 ‘터미네이터 2’의 유명한 모터사이클 추격 장면은 메마른 콘크리트 수로 위를 달리는 로스앤젤레스강(LA River)을 배경으로 삼는다. 흘러야 할 물길이 사라진 채 도시의 뒷골목처럼 봉인된 이 수로는 어느새 액션 영화의 무대가 되었다. 하지만 강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도시는 강을 통해 기억과 삶을 잇기도, 지우기도 한다.

서울의 청계천도 비슷한 궤적을 겪었다. 조선시대부터 서민의 삶과 시장



복원된 청계천의 시민들.

을 관통하던 이 하천은 산업화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덮이고 고가도로로 덮여 ‘속도의 시대’를 찬미하는 도시 인프라의 일부가 되었다. 2003년 복원 사업은 2년 반 만에 인공 수로를 되살렸고, 서울은 ‘환경도시’ 이미지를 얻었다. 다리 이름을 기억하고 물길을 따라 걷는 풍경이 회복된 듯했지만, 무엇이 진짜로 복원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물은 돌아왔지만, 그 물길에 스며 있던 노동의 기억—전태일과 평화시장의 삶—은 복원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인근 상인들과 노점상들은 임대료 상승으로 외곽으로 밀려났고, 보행로는 관광객과 미학적 연출을 우선하다 보니 시민들의 이용에 충분하지 못했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없어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변을 달릴 수



LA강변의 자전거 트레일.

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청계천은 ‘기억의 강’이라기보다 ‘이미지의 강’으로 되었다.

LA 강의 흐름은 다르다. 1930년대 대홍수 이후 전 구간이 콘크리트화되어 잊혀진 이 강은 21세기 들어 라틴계 이민자, 지역 커뮤니티와 예술가, 환경운동가들의 손길로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 복원은 느리고 누적적이다. 공청회와 예술제, 공동체 정원 조성 등으로 ‘관계의 장소’로 재구성되며, 완전한 복원 목표는 2050년으로 잡혀 있다.

또한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을 대비해 5.5마일 길이의 보행·자전거 도로를 개통하지만 복원의 속도는 느리다. 느린 속도는 신뢰를 쌓는 과정이 되고 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리오 프로젝트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도시의 고속도로를 지하로 숨기고 그 위를 공원으로 되살린 이 사업은 기술을 땅속으로 옮기고, 지상에는 놀이·문화·생태를 공존시키는 방식으로 과거의 자동차 중심 문화를 반성과 상상으로 전환시켰다. 외국에서 견학 온 기술자와 공무원들은 “지하차도가 굉장히 길다”는 감탄만 할 뿐 지상에 생태공원과 문화 공간이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안내원의 설명이 이어진다. 기술과 생태, 기억과 상상이 충돌하지 않고 어우러진 복원이었다.

이들 세 사례는 서로 다른 언어로 ‘내일의 도시’를 말한다. 청계천은 미래를 ‘디자인’했고, LA 강은 기억을 바탕으로 ‘공존’을 꿈꾸며, 마드리드 리오는 기술과 상상의 조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통된 질문이 남는다. 복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민 없는 복원은 또 다른 젠트리피케이션일 뿐이다. 진정한 복원은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물가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과 삶이 함께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속도를 쫓을 것인가, 기억을 따를 것인가. 미래를 진정으로 흐르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사람과 기억이 흐르던 강의 자갈 위를 다시 걸어야 한다.

# “눈앞의 혈당 수치가 식습관 바뀌”… 데이타는 미래의 처방전

## 이진형 동문의 뇌 이야기



이진형(공대 전기광학과 95)  
(스탠퍼드대 생명공학과 교수)

“아는 것은 힘인가, 스트레스인가?” 많은 사람에게 질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길 원하느냐고 물으면 ‘치료를 할 수 없다면 알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필자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알고 싶다”고 답해 왔다.

그런데 또다시 며칠이 지나니,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당수치가 어떻게 변할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 스트레스에 따른 수치가 얼마나 될까?’ 먹고, 자는 것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을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도 직접 보면서 수치를 보고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신세계였다. 한 번 경험한 후에는 계속해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다시 CGM을 구입해 착용하게 됐다.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

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바로 성적표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우리는 전문가들에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자주 묻는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대표적이다. 우리의 어떤 행동과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나온 데이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실험에서 나온 데이

고 완전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의 뇌에 대한 지식은 아직도 ‘잠을 자는 게 좋다.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수준의 상식선에 머물러 있다. 필자는 지난 15년간 뇌의 활동을 시각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해 왔다. 그 결과 이제는 환자의 뇌 건강을 시각화하고, 자세한 네트워크를 볼 수 있는 기술을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작 단계에 와 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여러 환자의 뇌 상태를 증상에 따라 관찰해 나가는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실험이 가능해지면서 지금까지

최근 연속혈당측정기(CGM)를 사용해 왔다. 당뇨병을 의심할 상황은 아니었다. 굳이 혈당을 측정할 이유는 없었지만, 과학자의 호기심으로 CGM을 활용해 혈당을 측정해 봤다. 처음에는 의외로 스트레스가 쌓였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바로 본다는 것 자체가 생활 속의 즐거움이었던 간식 먹기를 부담스럽게 했다. 마치 계속 놀면서도 시험을 안 봐 실력이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지속적인 시험을 치르게 된 느낌이었다.

그러다 3일째 되던 날, 착용 부위를 잘못 건드려서 CGM 센서가 망가졌다. 더 이상 당수치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내심 기뻐했다. ‘아, 이제 시험에서 벗어나는구나.’ 3일 정도 측정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미 생활 습관과 당수치의 관계를 꽤 알게 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측정을 멈추니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데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됐다. 정말 신기하게도 혈당 수치 등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없고 너무 좋았다.



## 혈당측정기로 살핀 혈당 수치 간식 섭취 등 스트레스 줬지만

## 식생활 개선 이끌며 긍정적 역할 데이터가 뇌 질환 치료 길 열어

력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필자는 빵과 디저트를 좋아한다. 탄수화물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많고 바쁜 일정을 보내는 와중에 좋아하는 음식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간 혈당 수치 등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전에는 상상하기 힘들던 식사 조절이 비교적 쉬웠다. 막연하게 ‘몸에 안 좋으니 먹지 말자’라고 생각할 때는 먼 미래를 위해 당장의 즐거움

터들을 바탕으로 유추할 뿐, 모든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알 수는 없었다.

당수치는 지난 수십 년간 쉽게 피검사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의 상태와 수치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다.

당수치와 달리 뇌의 활동에 관한 정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느 부위의 활동이 조금 변한다 정도의 제한적인 정보도 비교적 최근에는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됐다. 아직 추상적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빠르게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환자가 어느 부분이 아플 땐 이런 뇌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걸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정확한 진단은 물론이고 치료까지 가능하게 한다.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스트레스 증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역경을 이겨 나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큰 힘을 준다.

##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 ‘기회의 땅’과 ‘브라세로’

미국을 흔히 ‘기회의 땅(Land of Opportunity)’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표현은 처음부터 미국 전체를 가리킨 것이 아니었다. 17세기, 펜실베이니아를 세운 윌리엄 펜이 유럽 이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기회’란 달콤한 말로 유혹한 선전 문구였다.

400년도 더 된 말이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는 걸 보면 이민자들에게 ‘기회’만큼 더 듣기 좋은 말도 없는 모양이다. ‘아메리칸 드림’이니 ‘이민자의 나라’이니 하는 말은 훨씬 후에 나온 것들이다.

윌리엄 펜은 영국왕실에 돈을 빌려줬으나 왕이 이를 갚지 못하자 지금의 펜실베이니아 땅을 빚 대신 받아냈다. 왕은 펜을 총독으로 임명하고는 그래도 미안한지 ‘실베이니아’란 이름을 하사했다. 영어로 ‘숲’이란 뜻이다. 펜실베이니아를 풀이하면 결국 ‘펜의 숲’이 된다.

땅은 넓고 비옥했지만 노동력이

부족했던 펜은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유럽 각지에 뿌렸다. 이 전단지의 제목이 바로 ‘기회의 땅’이었다. 영어 뿐 아니라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으로 번역해 이민자들을 대거 모집한 것이다. 펜은 이 전단지를 갖고 온 사람에게만 펜실베이니아 정착을 허용했다. 요즘으로 치면 ‘기회의 땅’이란 종이 한 장이 일종의 이민비자 역할을 했던 셈이다.

펜은 인디언 원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 토지의 공유, 공정한 재판 등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미국이 독립하고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들이는 등 영토가 확장되면서 ‘기회의 땅’은 곧 아메리카 전체를 상징하게 됐다.

펜의 전단지는 200년 넘게 글자 하나 바뀌지 않은 채 쓰였다. 당시 ‘기회의 땅’ 전단지가 얼마나 발급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전통은 1800년대 중반까지 계속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민자에게 주어진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했던 것은 아니다. 유럽의 이민자들에게 토지를 주어 자손 대대로 ‘기회’를 이어가게 한 반면 중남미 노동자들은 ‘브라세로’(Bracero, 낱품팔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려다녔다. 수확철마다 임시노동자로 착취당하고, 일이 끝나면 다시 돌려보내졌다.

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때도 미국 농업은 이들의 노동에 크게 의존했다. 브라세로 없이는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에게 미국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고된 노동의 현상이었다. 유럽계 이민자들처럼 기회를 보장했다면 오늘날처럼 이 나라가 불법체류자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지는 않았을 게다.

21세기의 ‘기회의 땅’은 H1B 비자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H1B 비자의 경우 발급자체가 추첨제로 진행된다. 해마다 8만5천개의 비자가 풀리지만 전세계 신청자는 50만명을 웃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일부 국가들은 외교력을 발휘해 각각 자국민 전용 쿼터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0’이다.

이런 구조적 한계가 편법을 부추겼다. 까다로운 절차와 긴 소요 시간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ESTA 무비자나 B1 비자를 통한 단기 출장 관행에 의존해 왔다. 그러다 지난 9월 초,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졌고, 300명 넘는 한국인들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의 고급 기술자들이 21세기판 ‘브라세로’로 취급받는 현실이 씁쓸하다. 다행히 미국정부가 이들의 재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약속한 만큼, 하루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 ‘기회의 땅’과 ‘브라세로’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진 미국의 이민정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고민을 던지고 있다. <편집고문>

# 동창회 장학금 국내 최대 ... 2학기에도 22억원

리더십·공동체 활동 지원  
누적 장학생 2만 명 529억원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김종섭)의 장학금 규모가 올해 42억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악회는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 771명에게 총 21억 8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1학기 지급액을 합하면 올해 장학사업 규모는 장학생 1500여 명, 총 42억원에 달한다. 이는 단일 대학 동창회가 지급하는 장학금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8월 27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 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는 기부자 동문과 내빈, 장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장에 입장하는 기부자들을 향해 장학생들이 모두 기립해 박수를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수여식 내내 선후배 간의 끈끈한 연대가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번 학기 장학생은 학부생 632명, 석사과정 84명, 박사과정 24명, 석·박사 통합과정 31명으로 총 771명이다. 성적 우수자뿐 아니라 학생회 임원, 동아리 회장, 운동부 주장 등 교내 활동에 앞장선 재학생들도 포함됐다. 이는 장학금이 단순한 학업 성취를 넘어 공동체 활동과 리더십까지 격려하는 취지임을 보여준다. 이번 학기는 1학기보다 60여 명이 늘어나 역대 최대 인원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출범 초기 소규모로 시작한 장학금 사업은 지난 40여 년 간 계속 확대돼 현재 매년 1500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마포의 장학빌딩에서 나오는 임대수익금이 밑바탕이 됐다. 단일 대학 동창회가 이처럼 안정적인 재단 수익과 기부금으로 장학 체



8월 27일 열린 2학기 장학금수여식에서 김종섭 회장이 김민규 총학생회장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계를 운영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유례가 없다.

김종섭(사회사업66)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신뢰와 기대”라며 “강의실에만 머무르지 말고 취미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인생을 배우라”고 당부했다.

유홍립(정치80) 총장은 격려사에서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번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여러분의 잠재력과 미래에 대한 선배들의 기대가 담긴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기부자들은 직접 단상에 올라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후배들과 마주했다. 홍상욱(원예83) 상산학원 이사장, 정홍일(경영05) 흥인 대표, 정중시(화학72) 세진에이엠 대표, 윤철중(보건87) 보건대학원동창회 부회장, 조기호(화학교육54) 기호물산 회장과 부인 이영자(생물교육56) 동문, 성백전(토목52) 케이씨아이 회장, 박호진(경영62) 삼덕 회장, 문현경(식품영양71) 생활

과학대학 동창회장, 민수정(회화62) 미술대학 동창회 사무국장, 송경희(식품영양74) 명지대 명예교수, 이기방(영어교육59) 기소장학재단 이사장, 이종영(기계53) 원양통신 대표, 김영기(법학54) 전 롯데삼강 감사, 이도영(의학63) CM병원 이사장과 이윤경(간호65) 행정대표 등이 무대에 올라 학생들을 격려했다.

송경희 동문은 하버드 MBA 과정 중인 자녀와 함께 행사에 참석해 해외 장학제도의 특징을 언급했다. 송 동문의 자녀 노유나 씨는 “하버드에서는 장학생 선발 시 단순한 학업 성취를 넘어 사회 환원 의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헌신을 꼼꼼히 본다. 리더십과 나눔 경험, 졸업 후 사회적 기여 계획까지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서울대동창회의 ‘선순환 철학’과 맞닿아 있음을 강조했다.

장학생들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책임감이 묻어났다. 전교윤(생물교육23) 씨는 “직접 기부자님을 뵈니 거룩한 부담감이 든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는 마음이 커졌다”고 말했고, ROTC 후보생 이지현(산림과학22) 씨는 “총 4학기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서울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생활하겠다”며 “언젠가 후배들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행사 말미, 기부자들이 퇴장하는 길목마다 장학생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이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선배들의 마음이 후배들의 미래로 흘러 들어가는 ‘유산’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멈추지 않는 박수는 곧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길이 되겠다’는 다짐처럼 울려 퍼졌다.

1980년부터 2025년 2학기까지 관악회 누적 장학생은 2만 1200명, 지급액 누계는 529억원에 이른다. 관악회는 앞으로도 학업 성취와 더불어 공동체 정신과 리더십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하며 선순환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송해수 기자

##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 17%만 이뤄져”

### 관악경제인회 조찬포럼



반기문(외교63)  
전UN사무총장  
반기문재단 이사장

“2021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205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막자고 합의했지만,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을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 단계라 규정합니다. 이는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8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악경제인회(회장 서병륜) 조찬포럼의 연단에 오른 반기문(외교63) 전 UN사무총장은 ‘탄소중립시대, 기업의 역할과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섭(사회사업66) 총동창회장, 허진규(금속59) 일진그룹 회장, 성기학(무역66) 영원무역 회장, 이희범(전자67) 부영그룹 회장, 김종훈(건축69) 한미글로벌

### 지구, 글로벌 보일링 단계 진입 탄소중립시대, 기업 역할 강조

별 회장, 오세정(물리71) 전 총장, 유홍립(정치80) 서울대 총장 등 60여 명의 동문 기업인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을 거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제8대 UN사무총장을 연임하며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퇴임 후에는 반기문재단 이사장과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이사회 의장으로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 전 사무총장은 UN 재임 시절의 기억을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UN사무총장 시절 가장 자랑스럽게 꼽는 성과는 파리기후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입니다.” 2015년 12월, 195개국이 합의한 파리협약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자는 전 세계적 약속을 만들어냈다. 같은 해 채택된 SDGs는 빈곤,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등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담은 인류 공동의 청사

진이자 국제사회의 나침반이 됐다.

그러나 그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가 고작 17%만 이뤄져, 국제사회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분쟁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여 있는 사이 기후위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현실의 벽찬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와 국제기구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미래는 어렵습니다.”

강연은 이어 기후위기의 현장으로 옮겨갔다. 반 전 사무총장은 북극과 남극을 찾았던 경험을 회상하며, “빙하 위에서 연설하며 세계에 호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해수면 상승은 이미 해안 도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기온 상승은 수직 문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재해를 일상화시키고 있다”며 “인천 앞바다의 해수면이 불과 60cm만 높아져도 도심의 빌딩과 기반 시설이 기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그는 남태평양의 키리바시가 국토 전체가 물에 잠

길 위기에 놓여 땅을 사 이주를 준비하는 사례,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 계획을 결정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기후변화는 현재진행형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과거에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구가 끓고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당부는 더욱 직접적이었다. 그는 구체적인 에너지원별 탄소 배출량을 제시했다. “원자력은 1kwh(킬로와트시) 당 6g, 풍력은 10g, 태양광은 48g의 탄소만 배출합니다. 반면 석탄과 석유는 막대한 탄소를 내뿜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에너지 사용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 문제”라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에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생존의 과제”라며 “기업이 앞장설 때, 한국 사회와 세계가 함께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정윤 기자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캠페인>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 종신이사

###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 뉴욕-조상근 (법대69)
- 워싱턴주-故고광선 (공대57)
- 필라델피아-신의석 (공대53)

### 플래티넘이사 (\$50,000 이상)

- 조지아-주중광 (약대 60)
- 조지아-허지영 (문리 66)

### 골드이사 (\$10,000 이상)

- 워싱턴주-양남주 (명예이사)
- 남가주-김경숙 (간호대 68)
- 남가주-김일영 (의대65)
- 남가주-김보연 (간호대 63)
- 남가주-노명호 (공대 61)
- 남가주-박중수 (수의 58)
- 남가주-박창규 (약대 59)
- 남가주-서동영 (사대 60)
- 남가주-서치원 (공대 69)
- 남가주-성낙화 (치대 63)
- 남가주-심화섭 (약대 61)
- 남가주-이기준 (법대 54)
- 남가주-이병준 (상대 55)
- 남가주-이홍표 (의대 58)
- 남가주-벤자민 홍 (문리대 53)
- 남가주-하기환 (공대 66)
- 남가주-한귀희 (미대 68)
- 남가주-한택 (공대 60)
- 남가주-홍수웅 (의대 59)
- 남가주-홍훈정 (음대 70)
- 네바다-정상진 (상대 59)
- 뉴욕-강에드워드 (사대 60)
- 뉴욕-오인석 (법대 58)
- 뉴욕-이정자 (간호대 59)
- 뉴잉글랜드-박영철 (농대 64)
- 뉴잉글랜드-오세경 (약61)
- 뉴잉글랜드-윤상래 (수의대 62)
- 뉴잉글랜드-정선주 (간호 68)
- 뉴잉글랜드-최홍균 (공대 69)
- 미시간-박용화 (의대 52)
- 북가주-김정희 (음대 56)
- 북가주-민병곤 (공대 65)
- 북가주-전혜경 (문리 67)

- 샌디에고-이면기 (공대 64)
- 시카고-이용락 (공대 48)
- 시카고-조규승 (문리 72)
- 워싱턴주-김재훈 (공대 72)
- 워싱턴DC-이태영 (법대 60)
- 조지아-김현희 (간호대 59)
- 커네티컷-김창수 (의대 54)
- 필라델피아-김영우 (공대 55)
- 필라델피아-손재욱 (가정77)
- 필라델피아-이만택 (의대 52)
- 하트랜드-이상강 (의대 70)
- 하트랜드-김경숙 (가정 70)

### 실버이사 (\$5,000 이상)

- 남가주- 김원경 (약대 59)
- 남가주-권봉성 (문리대 64)
- 남가주-김병연 (공대 68)
- 남가주-박인창 (농대 65)
- 남가주-이종도 (공대 66)
- 남가주-이종묘 (간호대 69)
- 남가주-이호진 (간호대 74)
- 남가주-정임현 (간호대 72)
- 남가주-정재훈 (공대 64)
- 뉴욕-김현중 (공대 63)
- 미네소타-황호숙 (사대 65)
- 북가주-강재호 (상대 57)
- 북가주-박순희 (의대 60)
- 북가주-남광순 (음대 64)
- 북가주-차재철 (의대 62)
- 루지애나-강영빈 (문리대 58)
- 워싱턴 DC-남육현 (경영대 84)
- 워싱턴DC-배성호 (의대 65)
- 워싱턴DC-최재귀 (미대 63)
- 조지아-김경숙 (사대 64)
- 조지아-김태형 (의대 57)
- 조지아-임수임 (공대 62)

### 종신이사 (\$3,000 이상)

- 남가주-故노재성 (법대 58)
- 故서영석 (의대 55)
- 故오재인 (치대 33)
- 故윤낙승 (의대 60)

- 강신용 (사대 73)
- 곽웅길 (문리대 59)
- 권기홍 (의대 60)
- 김광은 (음대 56)
- 김기형 (상대 75)
- 김대중 (의대 70)
- 김동훈 (의대 71)
- 김보연 (간호대 63)
- 김상찬 (문리 65)
- 김성호 (법대 64)
- 김수영 (사대 57)
- 김자성 (의대 79)
- 김재영 (농대 62)
- 김재빈 (공대 66)
- 나두섭 (의대 66)
- 나용화 (생과대 79)
- 류재풍 (법대 60)
- 박명근 (상대 63)
- 박용필 (문리대 66)
- 박원준 (공대 53)
- 박운수 (문리대 48)
- 방명진 (공대 73)
- 백길영 (의대 58)
- 백만일 (공대 64)
- 신건호 (법대 53)
- 신경자 (사대 60)
- 신영찬 (의대 62)
- 심상은 (상대 54)
- 안병일 (의대 63)
- 오홍조 (치대 56)
- 이근원 (공대 67)
- 이명선 (상대 58)
- 이상숙 (공대 56)
- 이세열 (사대 57)
- 이승훈 (상대 74)
- 이채진 (문리대 55)
- 이청광 (상대 61)
- 임낙균 (약대 64)
- 임오우 (의대 57)
- 전경배 (의대 69)
- 전희택 (의대 58)
- 정근희 (의대 64)
- 정희영 (치대 56)
- 정동구 (공대 57)
- 정철룡 (의대 55)

- 제영혜 (가정대 71)
- 조용원 (문리대 66)
- 조한원 (의대 57)
- 차민영 (의대 76)
- 차종환 (사대 54)
- 한호동 (공대 58)
- 홍성선 (약대 72)
- 홍종화 (약대 74)
- 황해룡 (공대 52)

### 뉴욕

- 故김광호 (문리대 62)
- 故한창섭 (문리대 57)
- 故김중률 (사대 51)
- 고애자 (음대 57)
- 권영국 (상대 60)
- 김승호 (공대 71)
- 김영용 (치대 55)
- 김한중 (의대 56)
- 배정희 (사대 54)
- 서영숙 (간호대 67)
- 석창호 (의대 66)
- 손진태 (약대 67)
- 신응남 (농대 70)
- 오용허 (의대 66)
- 윤인숙 (간호대 63)
- 윤종숙 (약대 66)
- 이강홍 (상대 60)
- 이기영 (농대 70)
- 이대영 (문리대 64)
- 이영재 (상대 58)
- 이재덕 (법대 60)
- 이재량 (상대 61)
- 이전구 (농대 60)
- 이준행 (공대 47)
- 이태호 (상대 58)
- 조대일 (사대 53)
- 최수용 (상대 55)
- 최영태 (문리대 67)
- 최한용 (농대 58)
- 추재욱 (의대 57)
- 한태진 (의대 58)
- 허선행 (의대 58)

### 뉴잉글랜드

- 故고일석 (보건대 69)
- 故박경민 (의대 53)
- 김광수 (문리대 73)
- 고종성 (사대 75)
- 김문소 (수의대 61)
- 김용구 (공대 66)
- 오세경 (약대 61)
- 윤선홍 (치대 64)
- 이의인 (공대 68)
- 전신의 (문리대 57)
- 정정욱 (의대 60)
- 정태영 (문리대 71)
- 조만연 (상대 58)
- 홍지복 (간호대 70)

### 워싱턴 DC

- 故방은호 (약대 43)
- 강연식 (사대 58)
- 공순옥 (간호대 66)
- 권기현 (사대 53)
- 민홍기 (문리대 61)
- 박평일 (농대 69)
- 서휘열 (의대 57)
- 오인환 (문리대 63)
- 이내원 (사대 58)
- 이선구 (문리대65)
- 이윤주 (상대 63)
- 최지원 (의대 61)

### 미네소타

- 김권식 (공대 61)
- 김태환 (의대 58)
- 남세현 (공대 87)
- 문성인 (공대 88)
- 박현아 (공대 88)
- 변우진 (인문대 81)
- 송창원 (문리대53)
- 조형준 (문리대 62)

### 미시간

- 故남상용 (공대 52)
- 故정태 (의대 57)
- 장병진 (공대 61)

### 북가주

- 박종성 (법대 53)
- 박진영 (공대 66)
- 손석보 (공대 68)
- 윤정옥 (약대 50)
- 최경선 (농대 65)
- 한만섭 (공대 49)
- 황동하 (의대 65)

### 샌디에고

- 임천빈 (문리대 61)
- 유현주 (문리대 65)
- 진성호 (공대 64)

### 시카고

- 故이윤모 (농대 57)
- 강여국 (수의대 67)
- 소진문 (치대 58)
- 심상구 (상대 63)
- 이재희 (치대 67)
- 장윤일 (공대 60)
- 조봉완 (법대 53)
- 최의필 (의대 53)
- 한재은 (의대 59)

### 알래스카

- 윤제중 (농대 55)

### 오레곤

- 김상순 (상대 67)
- 박희진 (농대 78)
- 이은상 (상대 52)

### 오하이오

- 김용현 (경영 66)
- 이지우 (의대 68)

### 워싱턴주

- 故김영일 (공대 53)
- 이명자 (간호대 74)
- 이희백 (의대 55)
- 임현민 (공대 84)

### 조지아

- 김용건 (문리대 48)
- 석호태 (공대 85)
- 성성모 (사대67)
- 이중석 (의대 54)

### 커네티컷

- 故유시영 (문리대 68)

### 텍사스

- 박태우 (공대 64)
- 이광연 (공대 60)
- 조시호 (문리대 59)

### 플로리다

- 김중권 (의대 63)
- 임필순 (의대 54)

###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리대 55)
- 김현영 (수의대 88)
- 서중민 (공대 64)
- 신성식 (공대 56)
- 주기목 (수의대 68)

### 하와이

- 故최경운 (사대 51)

### 하틀랜드

- 故김명자 (문리대 62)
- 김시근 (공대 72)
- 배규영 (사대 68)
- 오명순 (가정대 69)
- 이교락 (의대 53)

### 휴스턴

- 박진섭 (의대 67)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동창회비 | 1차: 2025.7.1~2026.6.30, 2차: 2026.7.1~2027.6.30**

<b>남가주</b> 강동순 (법59) 강호석 (상81) 김광주 (문69) <b>김상순 (상67)</b> 김수영 (사57) <b>김영덕 (법58)</b> <b>김영배 (미61)</b> 김택수 (의57) 나승욱 (문59) <b>노명호 (공61)</b> <b>박인수 (농64)</b> 박호현 (의52) <b>벤자민홍 (문53)</b> 손학식 (공61) 심계식 (사63) <b>양은석 (음70)</b>	오선웅 (의 63) 이범식 (공61) 이채진 (문55) 장윤희 (사54) <b>장원경 (미73)</b> 정명자 (사56) 정 황 (공64) 주정래 (상65) 최규황 (법69) <b>한홍택 (공60)</b> 함승욱 (간호73)  <b>뉴욕</b> <b>강에드워드 (사60)</b> <b>고애자 (음57)</b> <b>권정덕 (의58)</b> <b>김복영 (간69)</b>	<b>김용연 (문63)</b> 김종원 (가정58) <b>민인기 (의67)</b> 선종철(의57) <b>손진태 (약67)</b> 신용남 (농70) 양명자(사63) <b>양성택 (상66)</b> 이문봉(미76) 이상근 (경영84) <b>이상무(의56)</b> 이영범 (공71) <b>이재원 (상58)</b> 조태환 (상56) 진봉일 (공50) 최준희 (의58)	<b>최형무 (법69)</b> <b>허영자 (약63)</b>  <b>뉴잉글랜드</b> <b>김형범 (문57)</b> 박종건 (의56) 윤영자 (미60)  <b>미네소타</b> 주한수 (수의62) <b>황호숙 (사65)</b>  <b>북가주</b> <b>강재호 (상57)</b> 민병곤 (공65) 신규영 (공64) 위창호 (의67)	<b>최경선 (농65)</b> 황만익 (사59)  <b>시카고</b> 김성일 (공?) 김용환 (공71) <b>소진문 (치58)</b> 윤경순 (사61) 이덕수 (문58) <b>장윤일 (공60)</b> 한의일 (공62) 홍청일 (약57) <b>황치용 (문65)</b>  <b>오하이오</b> 유덕영 (공57)	<b>워싱턴 DC</b> 권철수 (의68) <b>김내도 (공62)</b> <b>김인배 (수의59)</b> 박홍우 (문61) 석균범 (문61) 우제형 (상54) <b>이내원 (사58)</b> <b>이정관 (농83)</b> 이준영 (치74) 최규재 (문63)  <b>워싱턴주</b> <b>윤석진 (문64)</b> 이길송 (상57) 이회백 (의55) <b>최준한 (농58)</b>	<b>조지아</b> 서광모 (공65) 성성모 (사67) <b>이중석 (의54)</b> 최종진 (의63)  <b>중부텍사스</b> 이학호 (수의59)  <b>테네시</b> <b>권준희 (가정87)</b> 서갑식 (공70)  <b>텍사스</b> 천양곡 (의63)  <b>플로리다</b> <b>오석일 (의64)</b>	<b>필라델피아</b> 고석규 (치65) 김국간 (치64) <b>오진석 (치56)</b> 윤정나 (음57) <b>지흥민 (수61)</b>  <b>하와이</b> 이재형 (수의?)  <b>휴스턴</b> 이길영 (문59) <b>진기주 (상60)</b> 하재청 (문67)
--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분담금 | 2025.7.1~**

<b>일반후원금</b> <b>남가주</b> 김상순 (상 67) 300 김영배 (미 61) 200 윤석철 (상 60) 2,000 양은석 (음70) 200 이범식 (공61) 200 <b>뉴욕</b> 강에드워드 (사 60) 700 신용남 (농 70) 500	<b>뉴잉글랜드</b> 오세경 (약 61) 3,000  <b>미네소타</b> 김권식 50,000  <b>북가주</b> 황만익 (사59) 200  <b>조지아</b> 이중석 (의54) 100	<b>워싱턴 DC</b> 권철수 (의68) 200  <b>휴스턴</b> 진기주 (상60) 1,000  <b>지부 장학금 후원</b> <b>케네디컷</b> 故유시영 (문 68) 10,000	<b>평의원회 후원금</b> <b>뉴욕</b> 신용남 (농70) 500  <b>장학기금</b> <b>테네시</b> 권준희 (가정87) 100  <b>플로리다</b> 오석일 (의64) 200
---	---	--	--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달 2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증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 200 <input type="checkbox"/> \$ 500 <input type="checkbox"/> \$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7/2025~6/202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7/2026~6/2027, 1년) <input type="checkbox"/> \$200 (7/2025~6/2027, 2년)	<input type="checkbox"/> \$ 3,000 <input type="checkbox"/> \$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50,000 플래티넘 <input type="checkbox"/> \$100,000 이상, 다이아몬드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5/7~2026/6, 1년/1차) <input type="checkbox"/> \$240 (2026/7~2027/6, 1년/2차) <input type="checkbox"/> \$480 (2025/7~2027/6, 2년) <input type="checkbox"/> \$500 (디자인 추가시, 1년)	<input type="checkbox"/> SNUAA Scholar Program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관악연대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 발전기금
<b>웹사이트 광고비</b> <input type="checkbox"/> \$ 500 (1년) <input type="checkbox"/> \$ 1,000 (1년)	<b>광고비</b>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뒷면 표지) \$1,500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일반) \$1,0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 400	<b>TOTAL \$ _____</b>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년 (입학년도)	지부
이메일			전화번호	
현주소				
업소명	업소 주소	전화번호		
Check #	Date	Signature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단체로,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남가주 |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292

**AAMKO Consulting Co.**  
 강산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os Angeles,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os Angeles,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reet  
 Los Angeles, CA 90010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  
 Diamond Bar, CA 91765

**기계/기술/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900-1000  
 4184 E. Conant Street  
 Long Beach, CA 90808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1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T: 213-380-5060 (LA, CA)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siloamchung@gmail.com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os Angeles, CA 90004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의료/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의료/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nu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nu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운송/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  
 Tustin, CA 9278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Law Offices E. PETER SHIN**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F: 718-463-6789  
 35-15 159th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petershinesq@gmail.com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익규 (상대 82)  
 T: 201-978-7055  
 120 Sylvan Ave #303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  
 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oa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ree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nu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nue  
 Englewood,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ree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의료/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 MD, VA, MN**

**기계/기술/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재정/보험/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 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 Seoul Korea |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oad  
 Butord GA 30519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encevilla Hwy,  
 Lilburn, GA 30345

**H1C(Health 1 Care) / 김창석내과**  
 강창석 (의대 73)  
 T: 770-497-4188  
 10710 Medlock Bridge Rd, Ste 200  
 Johns Creek, GA 30097

**필라델피아 |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텍사스**  
**UNIFAITH Co**  
 최성호 (문리대 58)  
 T: 281-269-6176  
 4260 Asteroid Ct. Houston Texas 77068  
 unifaith@hotmail.com

**뉴잉글랜드**  
**URI**  
 이강원 (공대 66)  
 T: 401-874-2695  
 2 E. Alumni Ave. Kingston, RI 02881  
 leekw@uri.edu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 **SNUAA Forum**
- **Entrepreneurship Network**
- **SNUAA Market**

우리 동창회는 동문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platform을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ADVERTISE WITH US**



contact@snuaa.org

### 제18대 서울대 미주동창회

#### 회장 황효숙(사)

상임고문: 송창원(문), 김권식(공), 신학철(공)  
 고문: 한홍택(공) IT 담당  
 이희윤(농)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이준수(공) 조직관리 담당  
 신용남(농) 법률 담당  
 박평일(농) 친선 담당  
 오인환(문) 전략개발 담당  
 김태환(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II 의학 담당  
 문성인(공) 지부지원 담당

#### 차기회장 박상근(법)

#### 명예회장 이상강(의)

####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용남(농), 노명호(공)

#### 집행부

사무총장: 박현아(공)  
 총무국장: 임동근(경제)  
 재무국장: 손창수(상)

####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발행인: 황효숙(사)  
 편집고문: 박용필(문)  
 편집장: 신복례(인문)  
 편집위원:  
 김정필(공), 정태영(문), 이준수(공),  
 한정희(미), 최승희(사회대), 최화진(음),  
 문성인(공), 김량국(사), 이춘우(자연대),  
 정해원(자연대), 백승아(자유전공)  
 편집디자이너: 오은아

#### 지속가능 발전기획 위원회

위원장: 이희윤(농)  
 위원: 박현아(공), 강경철(공)

#### 브레인 네트워크

국장: 변정민(공)  
 SNU 포럼 위원회: 위원장 김재훈(공)  
 Entrepreneurship 네트워크 위원장:  
 김량국(사)

####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신용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문성인(공)

#### 회칙위원회

위원장: 이준수(공)

#### 감사

김영석(공)



####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651) 308-0796 | 이메일 contact@snuua.org |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미주동창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5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unaa.org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채규황(법대69) T: (818) 489-7892  
 Kchae100@yahoo.com  
 차기 양수진(간호대80) T: (714) 335-2148  
 회장 sujinyang2011@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송태영(자연대84)  
 T: (778) 866-8312  
 chris.van.bc@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70)  
 T: (403) 617-7585  
 MonicaWshaw.ca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문성인(공대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  
 이광진(공대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대79) T: (408) 464-4502  
 beomsupkim@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78)  
 T: (503) 648-0775  
 hjpark@flonomix.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55)  
 T: (907) 223-0887  
 jaejyoo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원덕수(공대건축학과72)  
 T: (617) 921-6798  
 douglasdwohn@g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정성일(공대86) T: (301) 395-7285  
 jeong05@gmail.com  
 차기 이동균(공대75) T: (847)644-4807  
 회장 dlee1917@yahoo.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박상호(치대80) T: (516) 776-0449  
 nomacast@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83) T: (425) 998-4150  
 Jklee234@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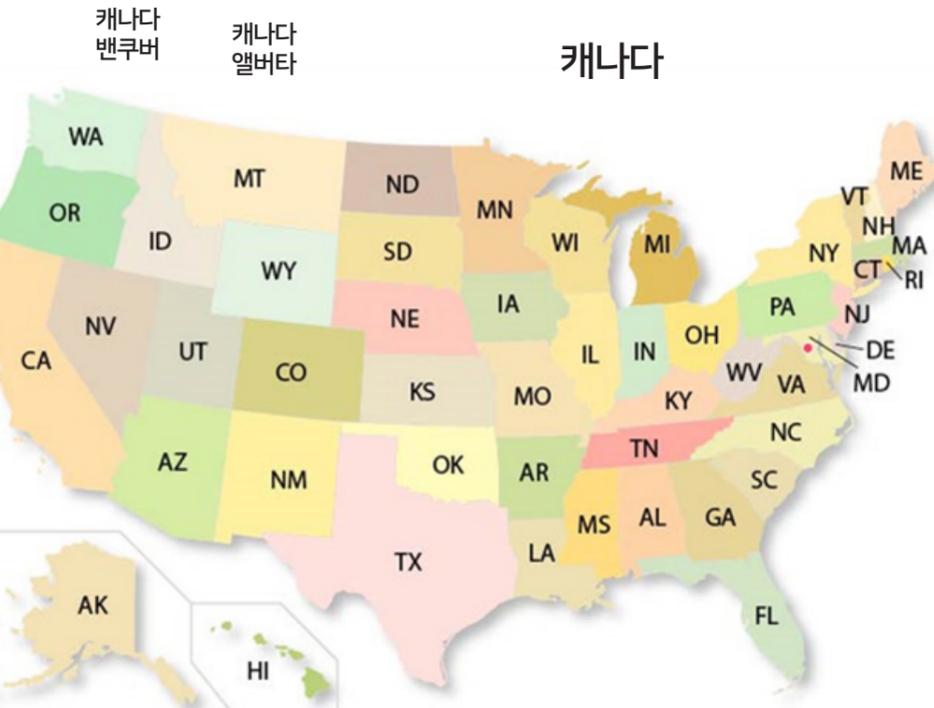
**오하이오주 Ohio** (Jan~Dec)  
 이성우(상대72) T: (614) 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77) T: (217) 508-87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85) T: (469) 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룩키아몬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73)  
 mungjchoi@hotmail.com

**휴스턴 H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김건호(공대91)  
 회장 kunhok@gmail.com



**중부 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59)  
 T: (512) 290-1911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93)  
 T: (734) 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최화진(음대85)  
 T: (828) 242-7150  
 hwajinmdma@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78) T: (417) 277-1636  
 sinho.jung@duke.edu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82)  
 T: (602) 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들랜드 IA/MO/NE/AR/OK** (Jan~Dec)  
 이주현(미대92)  
 T: (913) 220-3021  
 June.ch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65)  
 T: (561) 962-5185  
 yuhn@fau.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MAKE THE WORLD BEAUTIF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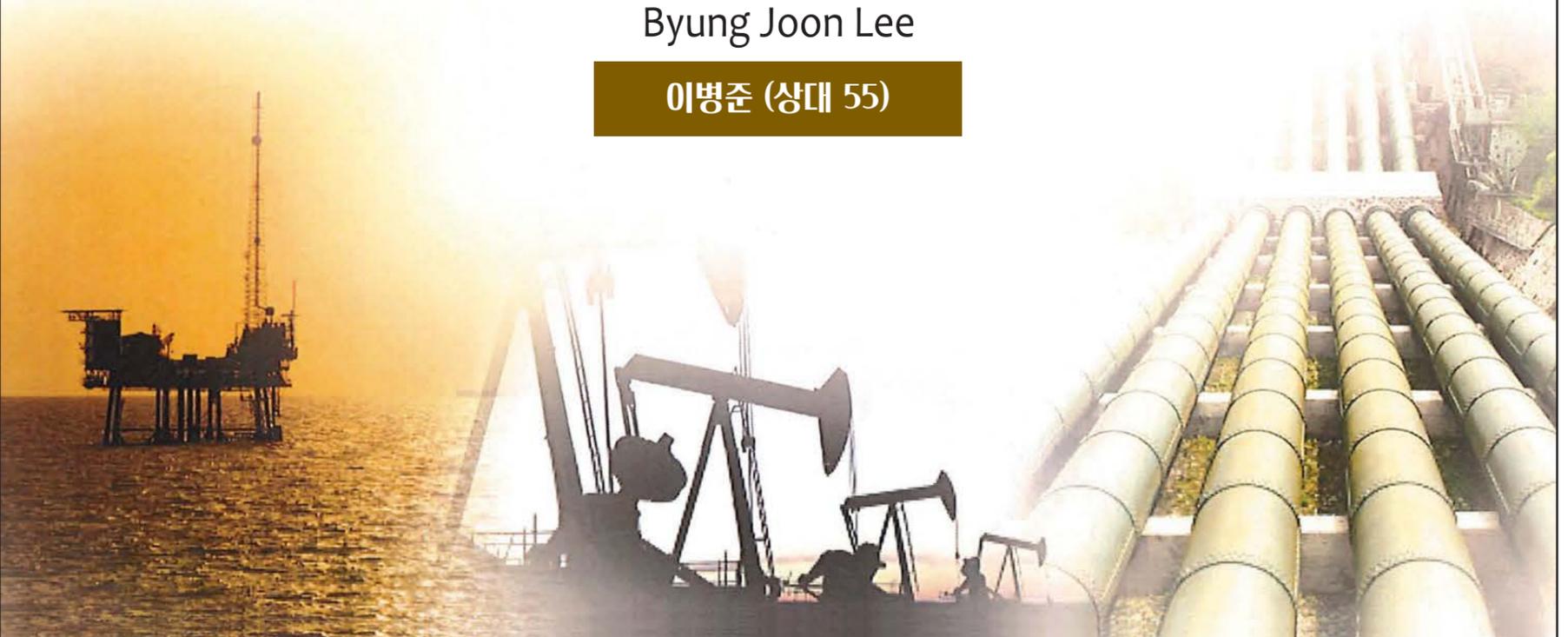
**SeAH**

**SeAH Steel America**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Byung Joon Lee

**이병준 (상대 55)**





2026 SNUAA-USA

# SCHOLARSHIP

for SNU ISP

서울대학교  
국제 하계 프로그램  
장학생 선발

**AWARD**

**10 Scholarships for \$10,000 each**

- Covers direct costs to SNU for SNU ISP in 2026
- Remaining balance (~\$5,000) paid to student

**ELIGIBILITY**

- Undergraduate student enrolled in a 4-year U.S. college/ university as of Oct 1, 2025
-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f Korean ancestry
- No previous award of an SNUAA-USA Scholarship

**ONLINE INFO**

**Scholarship Info:** <https://snuaa.org/snuaa-scholarships/>  
**Application:** <https://snuaa.org/snuaa-scholarship-application/>  
**SNU ISP:** <https://summer.snu.ac.kr/>

**QUESTIONS**

[contact@snuaa.org](mailto:contact@snuaa.org)

**DEADLINE**

**OCTOBER 31, 2025**



Online Application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